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21. 6. 8.(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영덕 괴시마을 지정 | |
| 2 | 봉화 오고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 |
| 3 |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 |
| 4 | 제주 성읍마을 내 건축물 용도변경(주택→휴게음식점) | |
| 5 |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6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7 |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 |
| 8 |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
| 9 |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 | |

【보고사항】

- | | | |
|----|-----------------|--|
| 10 |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
|----|-----------------|--|

심 의 사 항

1. 영덕 괴시마을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영덕군 영해면 소재 「영덕 괴시마을」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소재 「영덕 괴시마을」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18. 12. 7.) : 지정가치 있음.
- 지정예고 결과(2021. 5. 3.부터 30일간) : 반영
 - 한자명칭 오류: 허수아비 괴(傀) → 회화나무 괴(槐)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영덕 괴시마을(盈德 槐市마을/ Goesi Village, Yeongdeok)
 - 소재지 :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일원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면적
 - 지정구역 : 278,951㎡(173필지)
 - 보호구역 : 12,666㎡(37필지)
 - 건물현황 : 56호(전통가옥 43호, 기타 13호)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문화재위원 ○○○>

- 영덕 괴시마을은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과 관련된 문화재로서 도민속문화재 4호, 도문화재자료 12호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50여 개소의 고건축물과 전통적인 마을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민속문화 자원으로서 주민 자치 조직, 문중제례, 전통음식, 주거공간에 대한 이야기, 마을신앙으로 ‘동제’,

민속놀이 등이 전승되거나 아직 주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많다. 전적과 고문서 그리고 제기, 농기구를 비롯한 등 여러 민구와 사진 등도 많아 소장되어 있다.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괴시마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이 괴시마을은 한 마을의 역사적인 변천과 향촌사회의 변화상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덧붙이면, 괴시마을은 등록문화재 제762호로 지정된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 역사문화공간과 가까운(도보 20분) 마을로 민속마을 지정은 문화재 활용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문화재위원 ○○○>

- 괴시마을 뜰집의 형성과정은 고려 개경에서 출발하여 고려 개국공신의 거점이었던 안동을 거쳐 조선후기 학맥과 통혼, 분가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정착했다고 하는 역사적 과정을 그림처럼 읽어 낼 수 있다는 데 역사적 가치가 있다.
- 또한, 안채에 감실이 있었던 것에서 사랑채로 감실이 옮겨가고 20세기에는 사당으로 독립되는 과정을 통해 유교의례가 건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또 20세기 신축되는 가옥들은 규율과 엄격성으로 대표되는 뜰집을 탈피하여 연료와 기능적 실용성에 기반을 둔 양통집으로 바뀐 가옥들이 마을에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문적 요인에 의해 건축이 변화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읽을 수 있는 다양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 괴시마을의 건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괴시마을은 마을의 입향, 건축의 변화과정, 건축형태의 다양성, 희소한 뜰집의 분포상황에서 안동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위원 ○○○>

- 괴시마을은 경북 북부 해안지방에서는 사례가 드문 반촌마을로 400여 년간 지속되어온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 민속 등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마을의 구성과 형태는 산과 하천, 평야 등 자연환경에 유기적으로 적응한 모습을 보인다. 원래 명칭은 마을 주변의 지형지물에서 딴 ‘호지’였으나, 이곳에서 탄생한 목은 이색의 행적에서 유래한 ‘괴시’라는 이름이 생겼다. 오늘날에도 마을 주민과 인근에서는 두 명칭을 병용하는데, 목은 사후 620여 년이 지난 것을 고려할

때 지명이 갖는 역사성과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마을 내 가옥 군은 지형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택이 위치한 ‘윗말’과 ‘아랫말’로 영역이 구분되는데, 입향조 후손들의 분가, 정착 등 동족 마을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종법적 질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마을신앙인 동제 역시 영양남씨 중심의 큰 동제와 타 성씨가 주도하는 작은 동제로 이원화되었고 동신도 각기 별도로 존재한다. 마을 구성원 간 신분 등 서열적 요인이 동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마을에는 영양남씨 괴시과종택 등 민속문화재 4개소, 천전댁 등 문화재자료 12개소의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경북 북부지역의 반가 주택의 특징을 보이는 ‘口’자형 가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 괴시마을 고유의 민속신앙, 세시풍속, 문중 의례, 접빈례 등의 공동체 생활과 의식이 반영된 유·무형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반촌마을로써 접빈객을 중시했으며 해안지방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관해’라는 접빈 풍습이 특징적이다.
- 마을 주민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통해 마을의 전통을 보존, 전승하려는 합치된 의지가 강하다. 이를 위해 ‘괴시마을 보존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영양남씨 괴시과 문중뿐 아니라 마을의 타 성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 따라서, 괴시마을의 역사·기술·민속·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 괴시마을은 전통적 생활양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영양남씨 집성촌으로서의 내재적 질서와 함께 개별 가옥의 건축적 특징들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속마을로 통칭되는 ‘집단민속문화재 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마을의 지리적인 특징으로 살펴보면, 동해바다와 맞닿아 있는 농촌마을로서의 생활방식과 함께 동좌서향의 입지 조건은 기존 민속마을과 구별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마을보존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마을의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져 보존·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면소재지가 바로 인접해 있는 관계로 향후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마을을 포함한 일대 주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마을의 규모를 결정짓는 ‘집단민속문화재 구역’ 설정은 향후, 효율

적인 보존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집단민속문화재 구역’으로서 괴시마을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결정은 문화재위원회에서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지정예고기간 중 한자명칭 오류 외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는 상황으로 영덕 괴시마을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문화재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1부.
2.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1부.
3.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건축물 현황 1부.
4. 지정조사보고서 각 1부.

[붙임 1]

문화재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5	대	675	675						
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5-1	대	19	18						
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6	전	367	141						
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6-1	전	801	53						
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7	대	1,137	1,137						
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8	답	2,661	2,661						
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96	전	859	859						
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97	전	1,818	1,818						
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98-1	대	684	684						
1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98-2	대	572	572						
1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99-8	임야	281	281						
1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99-9	대	483	483						
1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99-12	도로	40	40						
1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99-13	도로	20	20						
1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7-1	도로	318	318						
1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7-2	도로	198	198						
1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7-3	도로	17	17						
1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7-4	도로	7	7						
19	영덕군 영해면	267-5	도로	22	2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괴시리										
2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7-6	전	109	109						
2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7-7	전	4,545	4,545						
2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7-8	도로	180	180						
2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7-9	전	132	132						
2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1	도로	54	54						
2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2	도로	59	59						
2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3	도로	26	26						
2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4	도로	7	7						
2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5	도로	29	29						
2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6	대	644	644						
3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7	대	511	511						
3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8	전	238	238						
3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 10	전	663	663						
3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 11	전	10	10						
3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 12	대	4	4						
3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 13	대	25	25						
3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 14	전	17	17						
3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 15	전	27	27						
3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0	대	238	238						
39	영덕군 영해면	301	전	1,726	1,72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괴시리										
4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2-1	대	631	631						
4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2-2	도로	4	4						
4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3-1	도로	14	14						
4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3-2	도로	109	109						
4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3-3	도로	5	5						
4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3-4	전	959	959						
4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3-5	도로	6	6						
4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3-6	전	28	28						
4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3-7	전	48	48						
4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3-8	전	4	4						
5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4	대	519	519						
5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5	대	354	354						
5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6-1	답	1,453	1,453						
5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6-2	도로	30	30						
5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6-3	도로	23	23						
5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6-4	답	11	11						
5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7	대	549	549						
5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8-1	답	367	367						
5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8-2	전	592	59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8-3	도로	109	109						
6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9-1	전	119	119						
6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9-2	대	291	291						
6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9-3	도로	30	30						
6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9-4	대	129	129						
6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0	답	1,098	1,098						
6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0-1	답	62	62						
6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1-1	답	760	760						
6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1-2	도로	248	248						
6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1-3	답	1,235	1,235						
6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1-4	답	53	53						
7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1-5	답	48	48						
7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2-1	도로	109	109						
7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2-2	도로	132	132						
7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2-4	전	403	403						
7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2-5	도로	56	56						
7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2-6	도로	17	17						
7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2-7	전	1,641	1,641						
7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2-8	전	210	21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3-1	전	1,577	1,577						
7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3-2	도로	20	20						
8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4	전	731	731						
8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5-1	답	1,266	1,266						
8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5-2	도로	40	40						
8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6	대	648	648						
8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7	대	678	678						
8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8	대	1,312	1,312						
8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9-1	대	734	734						
8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9-2	대	83	83						
8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0	대	1,034	1,034						
8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0-1	대	216	216						
9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2-1	대	635	635						
9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2-2	대	291	291						
9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2-5	도로	79	79						
9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2-6	대	139	139						
9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2-7	대	43	43						
9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3	대	588	588						
9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4-1	대	429	429						
97	영덕군 영해면	324-2	대	258	2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괴시리										
9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4-3	대	1,250	1,250						
9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5	대	552	552						
10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6	대	648	648						
10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7	대	261	261						
10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8	대	221	221						
10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9	대	403	403						
10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0	대	446	446						
10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1	대	621	621						
10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2	대	274	274						
10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3	대	1,259	1,259						
10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4	대	942	942						
10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5	대	690	690						
11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5-1	대	27	27						
11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6	대	678	678						
11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7	답	506	506						
11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8-1	전	572	572						
11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8-2	임야	1,230	1,230						
11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9	전	1,041	1,041						
11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0	대	645	64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1	임야	552	552						
11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1-1	임야	63	63						
11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2	전	438	438						
12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2-1	전	18	18						
12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3	대	202	202						
12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3-1	대	153	153						
12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3-2	대	254	254						
12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3-3	대	6	6						
12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3-4	대	10	10						
12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4	전	241	241						
12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5	대	221	221						
12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6	대	179	179						
12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7	대	312	312						
13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7-1	대	7	7						
13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7-2	전	923	923						
13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7-3	대	265	265						
13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8	대	519	519						
13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9	대	417	417						
13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0	대	936	936						
13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1	대	1,018	1,018						
137	영덕군	352	대	724	72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영해면 괴시리										
13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3	대	922	922						
13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4	대	321	321						
14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5	대	374	374						
14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6	대	390	390						
14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7	대	707	707						
14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8	대	347	347						
14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9-1	대	301	301						
14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9-2	전	311	311						
14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60	전	536	536						
14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61	전	86	86						
14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62	전	278	278						
14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63	답	1,534	1,534						
15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804	도	1,686	105						
15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812-3	구거	7,990	2,158						
15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816	도로	271	271						
15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825	도로	99	99						
15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826-2	도로	5,466	2,655						
15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0- 1	임야	92,430	92,430						
15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0- 2	임야	2,777	2,777						
157	영덕군	산41	임야	793	79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영해면 괴시리										
15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2	임야	793	793						
15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3	임야	25,388	25,388						
16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4	임야	1,190	1,190						
16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5	임야	793	793						
16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6	임야	2,389	2,389						
16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6- 1	임야	388	388						
16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7	임야	2,777	2,777						
16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8	임야	5,950	5,950						
16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49	임야	2,777	2,777						
16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50	임야	61,971	61,971						
16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54	임야	24,255	92						
16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103	구거	2,588	2,588						
17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103 -1	구거	99	99						
17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103 -2	구거	1,909	247						
17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104	도로	727	727						
17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118	도로	1,157	1,157						
계				315,974	278,951						

[붙임 2]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4	중	1,137	1,137						
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5-1	대	420	420						
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5-2	도로	17	17						
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5-3	대	618	618						
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6-1	대	231	231						
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6-2	대	251	251						
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6-3	도로	36	36						
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6-4	대	625	625						
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6-5	대	271	271						
1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6-6	대	169	169						
1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6-7	대	185	185						
1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6-8	대	119	119						
1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7-1	전	688	688						
1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7-2	도로	36	36						
1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7-3	답	340	340						
1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7-4	답	331	331						
17	영덕군	107-5	대	172	17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영해면 괴시리										
1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7-6	답	1,434	1,434						
1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7-7	답	26	26						
2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8-1	대	387	387						
2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8-2	도로	53	53						
2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8-3	도로	73	73						
2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8-4	대	353	353						
2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5-1	도로	43	43						
2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5-2	도로	122	122						
2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5-3	도로	41	41						
27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5-4	도로	56	56						
28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5-5	도로	174	174						
29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5-6	주차 장	383	383						
30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5-7	주차 장	389	389						
31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5-8	주차 장	440	440						
32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5-9	주차 장	917	917						
33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6-1	도로	175	175						
34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6-2	도로	7	7						
35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6-3	주차 장	1,775	1,775						
36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66-4	도로	102	102						
37	영덕군	826-2	도로	6120	7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영해면 괴시리										
계				18,062	12,666						

[붙임 3]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건축물 현황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	용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유자		성명
								성명	주소	
1	괴시리 영양남씨 괴시파종택	17세기말	본채	3량가/민도리/□자형 정면8칸/측면5.5칸	136.8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3 (호지마을1길 18-3)			
			사당	3량가/직절익공/一자형 정면3칸/측면1.5칸	18.6	제실				
2	영덕 괴시동 대남택	1776년	본채	3량가/민도리/□자형 정면4.5칸/측면6.5칸	107.2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3 (호지마을1길 32)			
			사당	3량가/직절익공/一자형 정면3칸/측면1.5칸	11.4	제실				
3	영덕 괴시동 물소와고택	미상	본채	목구조/□자형 정면5칸/측면7.5칸	169.6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4 (호지마을1길 18-1)			
4	영덕 괴시동 해촌고택	1775년	본채	5량가/직절익공/□자형 정면5칸/측면7칸	115.5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2 (호지마을1길 30)			
			사당	목조/전통기와/一자형 정면3칸/측면1.5칸	19.2	제실				
5	영덕천전택	1876년	본채	5량가/민도리/□자형 정면7칸/측면6칸	156.3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18 (호지마을1길 17)			
			문간채	3량가/민도리/一자형 정면4칸/측면1칸	28.1					
6	영해입천정	1680년대	입천정	5량가/익공/一자형 정면4칸/측면2칸	57.5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7 (호지마을길45-10)			
			마계정사	목조/전통기와/一자형 정면3칸/측면2칸	36.4					
			고직사	목조/전통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1칸	33.3					
7	영해주곡택	18세기	본채	3량가/한식기와/□자형 정면5칸/측면6칸	142.5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0 (호지마을1길 11-2)			
8	물소와서당	19세기	본채	3량가/민도리/一자형	26.1	제실	경북 영덕군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	용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성
								성명	주소			
			사주문	정면3칸/측면1칸 3량가/민도리/一자형 정면1칸/측면1칸	2.8		영해면 괴시리 332 (호지마을1길 18-4)					
9	영해경주택	1830년	본채	3량가/직절익공/口자형 정면4칸/측면5칸	88.2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5 (호지마을1길 24)					
			대문채	3량가/민도리/一자형 정면3칸/측면1칸	21.5							
			사주문 1	목조/맞배지붕	1.3							
			사주문 2	목조/맞배지붕	1.6							
10	영해구계택	1805년	본채	5량가/민도리/口자형 정면4칸/측면6칸	120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1 (호지마을1길 28)					
			화장실	목조/우진각지붕/一자형 정면2칸/측면1칸	5.8							
11	괴시리괴정	1766년	본채	오량가/민도리식/一자형 정면4칸/측면1.5칸	40.4	정자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7 (호지마을1길 29)					
			대문	목조/맞배지붕 정면1칸/측면1칸	3.4							
12	영덕괴시리 영감택	1847년	본채	삼량가/민도리/口자형 정면4칸/측면6칸	124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4-3 (호지마을1길 9)					
			창고	콘크리트/양철기와	22.4							
			화장실	목조/전통기와/一자형	2.1							
13	영덕괴시리 사곡택	1890년	본채	3량가/직절익공/口자형 정면4칸/측면4.5칸	97.5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0 (호지마을1길 16-3)					
14	영덕괴시리 영은고택	1871년	본채	3량가/직절익공/口자형 정면4칸/측면4칸	92.5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7 (호지마을1길 34)					
			대문채	3량가/민도리/一자형 정면3칸/측면1칸	15.3							
15	영덕 백희재고택	1827년	본채	3량가/직절익공/口자형 정면4칸/측면4칸	101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31 (호지마을1길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m ²)	용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성
							성명	주소			
						16-1)					
16	영덕괴시리 스르나골 재사	1780년대	재사	5량가/민도리/一자형 정면4칸/측면2칸	53.8	재사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5 (괴시사진길 121)				
			침수정	반5량가/민도리/一자형 정면4칸/측면1.5칸	35.1						
			화장실	3량가/민도리/一자형 정면2칸/측면1칸	6						
17	영덕 괴시리 구상택	1920년	본채	목조/기와/口자형 정면4칸/측면4.5칸	110.4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2-1 (호지마을1길 5-20)				
			화장실	목조/기와/一자형 정면1칸/측면1칸	3.6						
18	영덕 괴시리 서계택	미상	본채	목조/한식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2칸	74.5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4-1 (호지마을1길 5-10)				
			창고1	콘크리트조/一자형	16.8						
			창고2	벽돌조/一자형	30.3						
19	영덕 괴시리 대산택	1907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2칸	51.8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2-2 (호지마을1길 5-14)				
			창고	콘크리트, 벽돌조/一자형	16.5						
20	영덕 괴시리 송강택	1956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4.5칸/측면3.5칸	89.2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24-2 (호지마을1길 5-4)				
21	영덕 괴시리 이곡택	1974년	본채	시멘트블록조/기와/一자 형 정면4칸/측면2칸	93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6-1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m ²)	용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성
								성명	주소			
			아래채	콘크리트조/평지붕/一자형	19.4		(호지마을1길 5-5)					
			부속창고	콘크리트조/슬레이트/一자형	13							
22	영덕 피시리 금호택	1986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2칸	106.7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105-1 (호지마을길 13)					
			부속창고	콘크리트조/一자형	36.9							
23	영덕 피시리 일월택	1982년	본채	목조/벽돌조/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3칸	73.4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106-2 (호지마을길 13-1)					
24	영덕 피시리 주방택	1981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4칸	108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106-5 (호지마을길 15)					
			부속채	경량철골조/양철기와	65.7							
			부속창고	콘크리트조/평지붕/一자형	52							
25	영덕 피시리 삼가울택	1976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5칸/측면4칸	104.7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98-2 (호지마을1길 6)					
26	영덕 피시리 상귀택	1892년	본채	목조/와가/口자형 정면4칸/측면5.5칸	181.8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323 (호지마을1길 5-2)					
			화장실	목조/와가/一자형 정면1칸/측면1칸	38.25							
27	영덕 피시리 상포택(폐가)	1910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2칸	51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98-1 (호지마을1길 8)					
			화장실	목조/기와/一자형	4.5							
28	영덕 피시리 송천택	1920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5칸/측면2.5칸	67.4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325 (호지마을1길 10)					
			부속채	콘크리트벽돌조/一자형	52.7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	용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성
								성명	주소			
29	영덕 피시리 반포택	1976년	본채	목조/기와/ㄱ자형 정면6칸/측면4칸	125.7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326 (호지마을1길 12-4)					
			부속창고	목조/슬레이트/一자형	48.7							
30	영덕 피시리 성남택	1920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2칸	55.7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327 (호지마을1길 12-3)					
			부속채	콘크리트조	69.6							
31	영덕 피시리 임고택	1994년	본채	벽돌조/ㄱ자형	80.4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329 (호지마을1길 16-2)					
			대문	벽돌조	1.9							
			화장실	콘크리트조	9.3							
32	영덕 피시리 변포택	1910년	본채	콘크리트조/양철기와/ㄱ 자형 정면4칸/측면3칸	70.2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317 (호지마을1길 19-7)					
33	영덕 피시리 풍산택	1920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5칸/측면2칸	100.8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336 (호지마을1길 24-6)					
			화장실	콘크리트조	6.7							
34	영덕 피시리 영동택	1910년	본채	목조/양식기와/一자형 정면5칸/측면2칸	47.4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349 (호지마을1길 24-5)					
			아래채	콘크리트조	25.5							
35	영덕 피시리 표계택	1910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2.5칸	51.5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348 (호지마을1길 24-9)					
			아래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1.5칸	28							
			부속	콘크리트조	25.5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	용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유자		성
								성명	주소	
			창고							
			화장실	콘크리트조	1.7					
36	영덕 괴시리 최현만가옥	미상	본채	콘크리트조/양철기와 /ㄱ자형	80.4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7 (호지마을1길 24-11)			
37	영덕 괴시리 김만갑가옥	미상	본채	목조/슬레이트/ㄱ자형 정면4칸/측면1칸	40.5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7-3 (호지마을1길 24-19)			
			부속채	콘크리트조/슬레이트 /ㄱ자형	33.7					
			화장실	콘크리트조/샌드위치판넬 /ㄱ자형	8.7					
38	영덕 괴시리 홍련암 요사	미상	본채	목조/양철기와/ㄱ자형	85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3 (호지마을1길 24-21)			
39	영덕 괴시리 홍련암	1960년	대웅전	목조/기와/ㄱ자형 정면5.5칸/측면3칸	104.2	사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5 (호지마을1길 24-35)			
			적묵당	목조/기와/ㄱ자형 정면2칸/측면1칸	15					
			삼성각	목조/기와/ㄱ자형 정면1칸/측면1칸	4.5					
40	영덕 괴시리 만서헌	1893년	만서헌	목조/기와/ㄱ자형 정면3칸/측면1.5칸	53	정자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40			
41	영덕 괴시리 입암택	1901년	본채	목조/기와/ㄱ자형 정면5칸/측면2칸	67.8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0 (호지마을1길 26)			
			대문채	목조/기와/ㄱ자형 정면2칸/측면1칸	5.2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	용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성
								성명	주소			
42	영덕 괴시리 개남택	미상	본채	목조/양식기와/一자형 정면6칸/측면2칸	107.7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5 (호지마을1길 31)					
			아래채	목조/슬레이트/一자형 정면4칸/측면1칸	54.9							
43	영덕 괴시리 김영대가옥	1900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5.5칸/측면3칸	70.7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6 (호지마을1길 33-2)					
			부속 창고	콘크리트조	13.1							
44	영덕 괴시리 남호택	1973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5칸/측면2칸	98.8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4 (호지마을1길 33-4)					
			부속창 고	콘크리트	18.4							
45	영덕 괴시리 이호택	미상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5칸/측면3칸	91.4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5 (호지마을1길 33-5)					
			부속창 고	판넬	8.6							
46	영덕 괴시리 가정목은양 선생유허비	1971년 (비석) 1977년 (비각)	비각	목조/기와/一자형 정면1칸/측면1칸	4.2	비각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3-4					
47	영덕 괴시리 도평택	1920년	본채	목조/기와/一자형 정면4칸/측면2칸	75.8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2-1 (예주목은길 190)					
			창고	콘크리트조/양식기와	21.6							
			화장실	목조/기와/一자형 정면2칸/측면1칸	4.6							
48	영덕 괴시리 원봉택	1901년	본채	목조/양철기와/一자형 정면5칸/측면2.5칸	62.8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0 (호지마을1길 39)					
			화장실	콘크리트	5.4							
49	영덕	1978년	본채	콘크리트조/양철기와/一	99.1	주거	경북 영덕군					

연 번	명칭	시대/ 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	용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유자		성
								성명	주소	
	괴시리 호상택			자형 정면5칸/측면2칸			영해면 괴시리 360 (호지마을1길 40)			
50	영덕 괴시리 송계택	1962년	본채	목조/양철기와/一자형 정면4.5칸/측면1.5칸	52.2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8 (호지마을1길 36)			
			부속채	샌드위치판넬/양철지붕/ 一자형	53.8					
51	영덕 괴시리 계동택	미상	본채	콘크리트조/양철기와/一 자형	54.1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59-1 (호지마을1길 38)			
			창고 및 화장실	콘크리트조/양철기와/一 자형	16.2					
52	영덕 괴시리 남영세가옥 -	2019년	본채	목조/기와	88.59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299-6 (예주목은길 198)			
53	영덕 괴시리 하담가옥	1968년 이전	본채	콘크리트조/시멘트기와	102.9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8-4 (호지마을길 1)			
			부속채	콘크리트조/평지붕	53.4					
			창고	철파이프조/양철지붕	25.5					
54	영덕 괴시리 김성현가옥	1970년	본채	조적조/시멘트기와	119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8-1 (호지마을길 3)			
55	영덕 괴시리 황숙제가옥	1970년대	본채	콘크리트조/양철기와	130.2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7-3 (호지마을길 7)			
			화장실	콘크리트조/슬레이트	3.2					
56	영덕 괴시리 이태양가옥	2010년	본채	경량철골조/판넬	84.61	주거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07-5 (호지마을길 9)			

[붙임 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18>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 06. 28. 2021. 03. 15.	대상문화재	영덕 괴시(호지)민속마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민속학
	소 속	전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영덕 괴시(호지)민속마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03월 일

제출자

문화재청장 귀하

영덕 괴시마을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위원 ○○○

I. 괴시(호지)마을과 영양남씨

1. 괴시(호지)마을의 지리적 환경

괴시(호지)마을은 행정구역상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에 위치한 자연마을이다. 괴시리(槐市里)는 행정구역상 1리부터 3리까지 있으며, 괴시(호지)마을은 1리에 속한다. 괴시2리는 안동 권씨 동성마을이고, 괴시3리는 파평윤씨, 영해박씨 등이 정착하였으나 여러 성씨가 사는 각성마을이다.

괴시1리는 원래 호지촌(濠池村), '호지마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태어난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년)이 중국 사신으로 다녀와서 자신이 태어난 호지촌의 지형을 중국의 괴시와 흡사하다고 하여 괴시(槐市)로 고쳤다고 전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호지마을'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마을의 전체적인 방향은 서북쪽이고, 마을 앞으로 영해평야의 들판이 펼쳐져 있다. 마을 뒤 망월봉에서 흘러내리는 완만한 구릉이 마을을 받치고 있다. 마을 앞으로 영해면 시가지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가 마을 배후의 산자락과 평행 되게 지나간다. 마을의 주택들은 도로와 산자락 사이에 길게 늘어선 형태로 들어서 있다.

뒷산이 동쪽에 위치하면서 중심에 '중마골'이라는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 '중마골'의 정상부가 왼쪽으로 휘돌아 오르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지형은 마을 전체의 형세를 "입자형(入字形) 산세가 배면에서 마을을 둘러싼 형국"으로 보게 한다.

마을은 앞 도로에서 '중마골'로 올라가는 길을 기준으로 북쪽을 '아랫말'이라 하고 남쪽을 '윗말'이라 하고 있다. 길의 폭이 매우 좁고, 윗말과 아랫말의 대지의 높낮이도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아랫말은 산비탈 아래 산기슭을 따라 비교적 높은 곳에 서향으로 터를 잡은 다음 남북방향으로 집들이 줄지어 있지만, 윗말은 괴정(槐亭) 뒤편으로 집들이 집중되어 있고 남향으로 터를 잡은 집들도 있다.

마을의 동쪽으로는 대소산(286m)에서 상대산(183.3m)까지 이어진 산자락을 등지면서 서쪽으로 송천과 함께 영해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남쪽으로 영해면 소재지가 있는 성내리, 서쪽으로는 송천변에 자리 잡은 연평리, 북쪽으로는 송천 북쪽의 해안가의 덕천리, 동쪽으로는 어촌마을인 대진리가 있다.

2. 영양남씨의 입향과 성장

괴시(호지)마을은 고려말 함창김씨(咸昌金氏)가 처음 터를 잡았고, 이 시대 대유학자인 목은 이색(李穡, 1328~1396년)이 함창김씨(咸昌金氏)가 어머니인 외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이색의 생가터가 있다, 이후 수안김씨(遂安金氏), 영해신씨(寧海申氏)를 거쳐 1630년(인조 8) 무렵 영양남씨(英陽南氏)가 정착하면서 영양남씨 집성촌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동성마을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괴시(호지)마을의 영양남씨는 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에 입향한 남수(南須, 1395-1477)의 후손이다. 남수가 이곳에 낙향한 것은 인량리가 영해 5대 성씨 중 하나인 대흥백씨(大興白氏)의 집성촌이자, 처가였기 때문이었다. 남수는 손자까지는 외아들로 내려오다가 손자가 4남매를 두면서 장남은 본가를 지키고 차남 이하의 아들들은 다른 지역으로 분가를 하였다. 가깝게는 영해면 원구마을로 이주하거나 멀게는 영양·울진·청송·예천 등으로 이주하였다. 남수의 증손자 중 차남인 세하(世夏, 1490-1572)도 영양군 문암리로 이주를 하였으며, 세하의 삼남인 천석(天錫, 1534-1588)의 장남 정방(靖邦, 1557-1592)이 괴시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수안김씨(遂安金氏)와 혼인하게 되면서 괴시(호지)마을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괴시(호지)마을 실질적인 입향조인 정방의 손자 두원(斗遠, 1610-1674)이다. 그가 처음 정착한 곳은 선주민들이 살고 있던 중마골에서 영해평야 쪽으로 나온 지금의 괴시과 종택 자리이다. 그의 장남인 남봉익(南鵬翼, 1641-1687)이 현재의 종택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그 후 남두원의 차남 남봉한(南鵬翰, 1647-1706)이 선주민인 수안김씨(遂安金氏)와 혼인하고 아랫마을에 있는 지금의 대남덕 자리로 분가했다. 그 후 삼남 남봉구(南鵬九, 1668-1702)의 후손인 남우형(南右衡, 1728-1781)이 수안김씨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였다.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괴시(호지)마을에는 선주민들과 영양남씨가 같이 살고 있었다.

세대가 점차 확장하면서 괴시과 종택을 중심으로 하는 윗마을과 대남덕을 중심으로 하는 아랫마을이 중마골을 경계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남두원의 장남인 남봉익이 둘째 아들을 동생 남봉한의 양자로 보내 가계를 이었기 때문에 종택과 대남덕의 후손들은 모두 남봉익의 자손으로 볼 수 있다.

윗마을의 실질적인 중심은 바로 남택만(澤萬, 1729-1810)이다. 그는 둘째였지만 그의 장남 경석(景奭, 1752-1818)이 종택으로 양자로 가서 대(代)를 이었기 때문에 '큰집'이라고도 한다. 윗마을에 거주하는 영양남씨들은 거의 모두 남택만의 후손이다.

아랫마을의 괴정 준형(峻衡, 1703-1778)은 윗마을의 후손이었지만 아랫마을 종택의 가계를 이었기 때문에 아랫마을은 모두 그의 후손인 셈이다. 18세기 괴시(호지)마을은 영양남씨들의 꾸준한 분가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정착이 시작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괴시(호지)마을의 전반적인 틀이 잡히면서 물소와고택을 중심으로 하는 윗마을과 괴정을 중심으로 하는 아랫마을의 경계가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

영양남씨 괴시과는 마을에 정착한 이후에 영해평야의 넓은 땅을 기반으로 마을에서의 입지를 굳혀 나갔다. 괴시(호지)마을의 위치는 역과 항구 그리고 행정 중심지인 성내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위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7세기 이후 남인들의 정계 진출이 막힌 상황으로 인해 괴시(호지)마을에서도 봉익(鵬翼, 1641-1687) 이후 이렇다 할 대과 급제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영해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일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해와 안동지역의 명문가와 혼인 관계를 맺고 학문적 교류에 힘을 썼으며, 괴시종택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면서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영양남씨가 마을을 주도하게 되었다.

영양남씨에서는 남봉익을 기점으로 6대 동안 여러 명의 유학자를 배출하였고, 이들은 괴시(호지)마을을 반촌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유학자는 입천정(卍川亭) 봉익(鵬翼, 1641~1687), 진사공(進仕公) 명흠(命欽, 1676-1740), 생원공(生員公) 기형(紀

衡, 1700-1756), 괴정(槐亭) 준형(峻衡, 1703~1778), 물소와(勿小窩) 택만(澤萬, 1729-1810), 해촌(海村) 극만(極萬, 1734-1802), 줄헌(拙軒) 경악(敬岳, 1763-1821), 명애(明厓) 화수(華壽, 1781-1851), 해산(海山) 기수(箕壽, 1788-1817), 백회재(百悔齋) 곤수(崑壽, 1789-1847) 등이 있다.

그 밖에 조선 숙종 때 예조좌랑(禮曹佐郎) 및 영산현령(靈山縣令)을 지낸 회수(晦叟) 남봉익(南鵬翼:1641~1687)이 1680년경에 2~3칸 규모로 지은 정자인 입천정(卍川亭), 1766년(영조 42) 괴정(槐亭) 남준형(南峻衡, 1703-1778)이 고려말의 유학자 가정(稼亭) 이곡(李穀)과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기려 지은 경목재(景牧齋), 조선 후기 좌승지에 추증된 물소와(勿小窩) 남택만(南澤萬:1729~1810)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하여 1849년에 지은 건물인 물소와서당(勿小窩書堂)이 교육 장소로 이용되었다.

II. 괴시(호지)마을의 주민조직과 문중조직

1. 마을조직

괴시(호지)마을은 행정적으로 괴시1리에 속한다. 괴시1리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169가구 284명(남, 131명, 여 153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172가구, 434명(남: 208명, 여:226명)이다. 20년전에 비해 3가구 줄었지만, 인구는 150명으로 거의 65%가 줄어든 셈이다. 현재 60세 이상의 주민이 136명으로 48%이고, 50세에서 59세가 62명으로 21%로 마을 주민 대부분이 50세 이상이다. 이 중 영양남씨가 모여 사는 괴시(호지)마을은 영양남씨가 37가구 59명(남 28명, 여 32명)으로 40대 1명, 50대 2명이고, 모두 60세 이상이다.

괴시(호지)마을 주민들의 일부는 산업화 이후 객지 생활을 하다가 온전하게 귀촌을 한 사람과 객지 생활과 겸하는 사람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괴시 1리인 괴시(호지)마을 행정적 주민자치 조직은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가 있다. 이런 공식적인 행정적인 조직 이외에 마을자치 조직으로는 마을의 초상이 나면, 주민들의 협동을 목적으로 한 상여계가 있었다. 이 계는 주민의 고령화로 상여를 뭉 사람이 드물고, 이런 일은 전문장례식장 등에서 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또 다른 자치조직은 다른 마을이나 문중과 함께하는 사회조직으로 ‘치헌계(癡軒契)’와 ‘대동계(大同契)’가 있다. 치헌계는 과거 괴시(호지)마을에 거주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영해지역에서 역학(易學)으로 명성이 높았고, 영양남씨와 외척관계인 수안김씨(遂安金氏) 치헌(癡軒) 김덕오(金德五, 1680-1748)를 기리기 위한 조직이다. 현재도 매년 정기적으로 선생을 추모하고 식사를 가지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대동계는 괴시(호지)마을 북쪽에 인접해 있으면서 혼인관계로 많이 얽여 있는 괴시2리 관어대마을과 1년에 한 번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식사를 함께하는 모임이다.

괴시(호지)마을의 영양남씨는 괴시 1리의 타성 주민들과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괴시1리에 거주하고 있는 영양남씨 문중의 노인들은 오래전부터 문중을 중심으로 협력을 하고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성씨를 가진 주민들과는 서로 교류하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동사무소였던 건물을 개조해서 별도의 경로당을 만들어서 영양남씨 주민들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마

을회관은 영양남씨를 제외한 다른 성씨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경로당은 영양남씨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적으로는 같은 마을이지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서로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구별을 짓고 있었다. 이렇게 따로 생활하게 된 지는 약 10여 년이 되었다. 따라서 괴시(호지)마을의 영양남씨 주민들에게는 노인회보다는 영양남씨 문중에서 운영하는 노인소(老人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소(老人所)는 영해지역의 독특한 사회조직으로 마을마다 문중별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괴시(호지)마을도 오래전부터 영양남씨 괴시문중에서 노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소는 문중의 어른을 공경하고, 효(孝)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괴시(호지)마을에는 마을 노래인 동가(洞歌)가 있는데, 1950년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년들이 모여 지은 가사 속에는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난다. 괴시(호지)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마을 행사가 있을 때 동가를 함께 불렀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노인 남성들은 동가를 부를 수 있다.

2. 영양남씨 괴시파 종친회

괴시(호지)마을과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영향력이 큰 마을 조직은 영양남씨 괴시파 종친회이다. 주민들도 마을에서 일어나는 주요 일과 사무는 이장보다는 영양남씨 괴시파 종친회의 도유사(都有司)나 괴시전통마을 보존회의 회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는 괴시(호지)마을의 주요 공적인 일들은 주로 문중 혹은 고택과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종친회는 영양남씨 괴시파 후손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종택(宗澤)을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친회의 임원 구성은 회장, 도유사, 감사가 있다. 회장은 관례적으로 괴시파의 종손이 맡는다. 도유사와 감사는 4년 임기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종친회 총회에서 회의를 통해 임명된다. 주로 비교적 나이가 젊다고 할 수 있는 50~60대가 전담하고 있으며, 한번 임명이 되면 최소 2~3차례 연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친회 총회는 입천정(廿川亭) 취회(聚會)라고 하며, 이는 남봉익의 호인 '입천정'에서 유래한다. 이 같은 종친회는 매년 음력 4월 18일에 열리는데, 이날이 바로 남봉익이 과거에 급제했던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3. 괴시전통마을 보존회

괴시(호지)마을에는 마을 내 전승되는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괴시전통마을 보존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 보존회는 경북이 2000년대에 추진한 유교문화개발사업을 계기로 조직되었으며, 비영리조직이다. 초기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의 소유자들만을 회원으로 하고, 회장 등의 임원은 마을의 원로가 맡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의 주민들도 회원가입이 가능하여, 현재는 스프나무골의 타 성씨 주민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Ⅲ. 일생의례

1. 혼·상례

일생의례는 출산의례에서 상례까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제례를 포함한 의례를 말한다. 즉,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도 살아계신 부모님과 같이 모시는 조상숭배 관념이 강하다. 괴시(호지)마을도 전통적인 의례가 196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

만, 제례만큼은 잘 전승되고 있다.

괴시(호지)마을은 약 1960년대까지 전통방식의 혼례를 치루었다. 혼례에 있어서 중매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주로 8촌 이내의 사돈, 외손, 고종, 이종 등 가까운 친척이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들을 통해서 혼기가 찬 친족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중매로 이어준다. 괴시(호지)마을의 경우 멀게는 의성, 안동, 영양, 경주지역에서 오기도 했다. 가깝게는 주로 관어대마을과 송천마을의 안동권씨나 도곡마을의 무안박씨와 혼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혼인 연령은 주로 19~20세였고 22세 이후로는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자료는 홀기(笏記) 등이 남아 있다.

괴시(호지)마을의 전통적인 상례는 1994년 상례 때 거의 마지막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자료가 남아 있다. 적어도 1994년까지는 마을의 상조계(相助契)에서 상가집을 도와주고 상여를 메고 나가고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마을에 초상이 나면 다 같이 집집마다 손님을 받았고 음식은 국과 밥, 김치, 물김치, 수란, 식혜를 하였는데 밥식혜, 소식혜, 명란식혜, 창란에 소금을 넣은 창란식혜도 했었다고 한다. 고기 대신 회를 놓기도 했으며 초기에는 나물국을 끓이고 나중에는 육개장을 끓였다고 한다. 상주는 소식(小食)을 했고 상주는 고기는 절대 안 먹었으며 흰죽이나 콩죽을 먹었다고 한다.

2. 제례

괴시(호지)마을의 제례는 기제사, 추석과 설 차례, 묘제 등 전승되고 있다.

차례는 큰집이 아니라 작은집들부터 먼저 제사를 지낸 후 종가까지 차례대로 올라가며 지냈다. 그래서 설 차례의 마지막 순서는 종가였는데, 집마다 차례를 지낼 때마다 떡국을 먹고 술을 한 잔씩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차례를 지내기 시작하면 정오~오후 2시쯤은 되어야 종가 차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괴시과 종택의 설 차례상에는 해산물과 소고기 산적, 술, 과일 등을 올렸다. 생선은 주로 방어와 참가자미를 사용했으며, 문어와 고등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육고기로 닭은 생략했다. 구계택의 설 차례상에는 떡국, 유과, 과일, 문어, 생밤, 잣, 명태, 산적 등을 올렸다.

오늘날에도 문중의식이 비교적 강한 지역에서는 묘제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을 볼 수 있다. 영양남씨 역시 묘제를 6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를 '6소(六所)'라고 한다. 육소 외에 도 스프나골에서 아랫말 18세 괴정공 준형의 묘소와 재사(齋舍)가 있어 묘제를 지내고 있다. 육소(六所)는 영양남씨 괴시과 문중의 선대묘소를 말하며 영덕, 영양, 일원의 6곳에 있다. 이 6개의 묘소의 관리, 성묘, 제토(祭土), 재사의 수호관리를 위한 제도를 '육소(六所)'라 통칭하고 매년 가을 묘사를 봉행(奉行)하고 있다고 한다. 육소는 마을 어른들이 각 소를 돌며 제사를 함께 지내었으며 각 소마다 접빈소가 있어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영양남씨 묘제는 음력 4월 18일 문중 성원들이 괴시과 종택에 모여 각소의 유사들을 선정하는 파록(爬錄)이 시작이다. 파록을 개최하는 날짜는 16세 남봉익이 등과를 한 날을 기념하여 매년 행해지고 있다. 회의가 시작되면 먼저 파록을 작성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파록을 작성하면 종택 사랑마루에 붙여 놓는다.

IV. 세시와 민속놀이

과거 괴시(호지)마을의 세시풍속은 양반마을이자 영양남씨 동성마을로서의 특징을 띠었다. 세시 명절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글을 지으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설이나 추석 차례 등 중요한 명절차례에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모여 종택의 차례 준비를 도왔다. 또, 평소에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엄격하였으나 정월 대보름과 단오에는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여 놀이를 즐겼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세시풍속이 축소된 모습을 보이지만, 설, 대보름, 복날, 추석과 중구, 동지 등 주요 세시 날에는 그에 맞는 차례를 지내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세시풍속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속놀이는 정월 대보름 무렵에 했던 척사대회와 줄당기기는 괴시(호지)마을의 대표적인 놀이였다. 이 두 가지 놀이를 할 때는 괴시(호지)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풍물을 치고 놀았으며, 주변 마을 사람들이 구경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현재는 영양남씨 괴시종과 문중에서 봄·가을에 정규 모임을 할 때 척사놀이를 하는데, 옷을 줄 위로 던지는 방식은 과거와 같으나 옷말을 놓는 방식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옷말을 직접 놓지 않고 옷판을 외워서 ‘건궁말’을 움직이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일반 옷놀이와 같이 옷말을 놓는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줄당기기는 진행되지 않는다. 척사대회와 줄당기기는 과거에 비해 축소되거나 사라졌지만, 지금까지도 괴시(호지)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추억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놀이이다.

단오 민속놀이는 그네뛰기를 꼽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마을회관 앞의 버드나무와 마을 뒷산 소나무에 새끼줄을 엮어 그네를 매달아 놓고 마을 사람들이 줄 서서 그네뛰기를 했다. 현재는 마을 사람들이 단오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네를 매달지는 않지만, 밀동 굽은 나무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네뛰기 놀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괴시(호지)마을은 영양남씨 집성촌이자 바닷가와 인접한 양반마을로, 예부터 ‘관해(觀海)’, ‘류(類)’, ‘마작’ 등의 독특한 풍속 놀이가 전해져 내려온다. 관해(觀海)는 평소 바닷가를 잘 가지 않는 괴시(호지)마을 사람들이 내륙에서 손님이 오면 바닷가를 구경시켜주는 일종의 접빈 풍습이다. 현재는 전해지지 않으나, 과거 바닷가에 가까이 사는 반촌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관습이다. 류(類)는 괴시(호지)마을 사람들이 3살 터울로 만들던 무리로, 어린 시절에 형성된 류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진다. 이는 친척 관계로 이루어진 괴시(호지)마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해온 놀이문화이며 요즘에도 유지되고 있다. 마작은 괴시(호지)마을 남성들이 즐기는 일상놀이인데, 그 역사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괴시(호지)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괴시(호지)마을이 높은 학식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요령과 기술,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놀이인 마작이 유행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한다. 지금도 노인 남성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마작을 즐긴다.

V. 가정신앙과 마을신앙

1. 가정신앙

과거 괴시(호지)마을 사람들은 주로 성주신앙과 삼신신앙을 믿었고 집집마다 성주단지, 삼신단지와 같은 신체(神體)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신체를 모시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새마을사업 시기 미신타파 운동의 영향, 가옥 개조 또는 신축과정에서 신체를 없앤 경우, (시)부모 세대의 사망 이후 이어지지 않는 경우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꼽을

수 있다.

주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믿어왔던 가정신앙은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는 신체를 모시지 않는다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신체를 모셔서 기도를 올리거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성주단지와 삼신단지를 버리지 않고 집에 둔 사람들도 있다. 삼신단지를 . 집안에서 모시던 성주단지 또는 삼신단지를 더는 모시지 않으려면 고해야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을 함부로 없애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사곡댁은 삼신단지도 ‘가는 날’이 있어서 ‘성주 생일’처럼 해마다 챙겼다고 한다. 가는 날은 그 집안에 삼신단지를 처음 놓은 날이며, 밥을 해서 삼신 앞에 상을 차렸다. 삼신단지도 성주단지와 마찬가지로 가을에 햅쌀을 넣고 다음 해 가을에 묵은쌀을 꺼내서 찌서 식구들끼리 나눠 먹었다. 쌀을 교체해서 넣을 때마다, 그해 햅쌀로 처음 지은 밥을 삼신 앞에 상을 차려서 바쳤다. 사곡댁의 삼신단지는 별도의 뚜껑 없이 종이로 위를 덮어두었다고 한다.

2. 마을신앙

괴시(호지)마을의 대표적인 마을신앙은 동제이며, 매년 정월 열나흘날과 대보름에 유교식으로 치러진다. 괴시(호지)마을의 동제는 마을 이장이 지원하고 영양 남씨 괴시종파 집안에서 주관하여 제관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마을의 수호신인 축귀장군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동제가 끝난 후 집마다 백설기를 나누어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동제를 마치고 남은 음식을 모두 마을회관으로 옮겨 나누어 먹는다. 과거에는 동제가 치러지는 정월 열나흘날과 대보름 오전에 여성과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이 같은 풍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할머니들은 동제가 끝난 대보름 오후가 되어 서야 마을회관에 모여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괴시(호지)마을의 동제는 예로부터 작은 동신과 큰 동신에 따로 지냈으며, 각각 ‘작은 동제’와 ‘큰 동제’로 불려왔다. 과거 큰 동제는 영양남씨들을 중심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지내왔으며, 모든 제관을 영양남씨 중에서 선정하였다. 큰 동제를 지내기 위하여 장만하는 제수로는 장담 두 마리, 채반 두 그릇, 메 두 그릇, 가자미 두 마리, 백편, 밤, 대추, 꽃감, 사과 등이 있었다. 제관은 한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설날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동제 지낼 때 다시 사용하였다. 그리고 큰 동제의 제의는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진설, 강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첨작, 유식, 진다, 소지의 순으로 지내왔으며, 큰 동신에 대한 제의를 마친 다음에 도로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겨 영해들을 향하여 간단히 제수를 장만한 채 거리제를 지냈다.

요즘에는 마을 인구의 감소와 동제 비용 마련에 변화가 생겨 큰 동제와 작은 동제의 구분이 거의 사라졌다. 과거에는 큰 동제는 영양남씨 위주, 작은 동제는 타성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두 동제 모두 영양남씨가 제관이 되어 진행한다. 큰 동제를 지내기 위해 선정된 7명의 제관이 작은 동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셈이므로, 큰 동제와 작은 동제에서 제관의 역할과 임무에는 차이가 없다. 또 한 금기나 제물 장만 등에 있어서도 두 동제는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월 열나흘 날 밤에 작은 동제를, 대보름날 밤에 큰 동제를 지내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정월 열나흘날 밤에 작은 동제를 지낸 후 큰 동제를 지내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괴시(호지)마을에서는 동제에 관한 여러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동제완의(洞祭完議)가 전한다. 이 완의는 앞에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전하여 그 작성시기는 알 수 없지

만, 병자(丙子)년에 작성했다는 것과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1936년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화폐단위나 내용으로 보아 1876년 또는 그 이전에 작성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괴시(호지)마을과 가까운 해안의 여섯마을과 부조관계 등의 내용도 있어 마을관계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마을주민들이 과거 향유했던 활동 지점

VI. 의 · 식 · 주생활

1. 의·식생활

전통적인 복식은 길쌈에 의존하였고, 괴시(호지)마을의 주민들은 검소한 삶을 살고자 대부분 옷을 직접 제작하여 만들어 입었다. 이외에도 설날에 아이들이 입을 ‘설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수의’ 등 세시풍속 및 일생의례를 실천하기 위한 복식은 비교적 늦게까지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괴시(호지)마을의 음식문화는 대개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지역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다.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문화권에서는 콩(대두)의 음식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여 된장류 및 날콩가루를 재료로 하는 일상음식이 전승되었다. 그리고 동해안 일대에 남아 있는 ‘어식혜(魚食醢)’에서 생선(魚)이 빠진 ‘소식혜(素食醢)’와 이를 응용한 ‘안동식혜’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괴시(호지)마을에서는 접빈을 위한 음식으로 이른바 ‘안동 스타일’의 손칼국수를 만들어 대접하였다. 흔히 안동국수로 일컬어지는 손칼국수는 면을 반죽할 때, 기본적으로 밀가루에 콩가루를 함께 넣어 반죽을 빚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육수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맹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멸치를 조금만 쓰는 것이 특징이다.

2. 주생활

괴시(호지)마을에는 영양남씨 소유의 집이 50여채가 있다. 이 집들 중에는 영양남씨 괴시파 종택을 비롯한 민속문화재가 4호와 영감택을 비롯한 문화재 자료가 12호 지정되어 있다. 이중 문화재자료 입천정과 괴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살림집이다.

이들 집은 입향조 두원(斗遠, 1610~1674)의 세 아들 중 첫째 봉익(鵬翼, 1641~1687)과 둘째 봉한(鵬翰, 1673~1704)의 자손들이 거주한다. 봉익의 자손은 8호, 봉한의 4집이다. 입천정(卍川亭)은 봉익이 1680년경 건립하였고, 괴정(槐亭)은 봉한의 손자 준형(峻衡, 1703~1778)이 1776년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준형은 봉익의 손자이지만, 봉한의 아들에게 양자로 갔다. 괴시(호지)마을의 영양남씨 각 집들은 입향조 두원(斗遠, 1610~1674) 이하 자손들이 양자(養子)관계로 많이 엮어져 있다. 문화재로 지정 목록과 집들의 관계를 보면 다음 표1과 2와 같다.

표1. 지정문화재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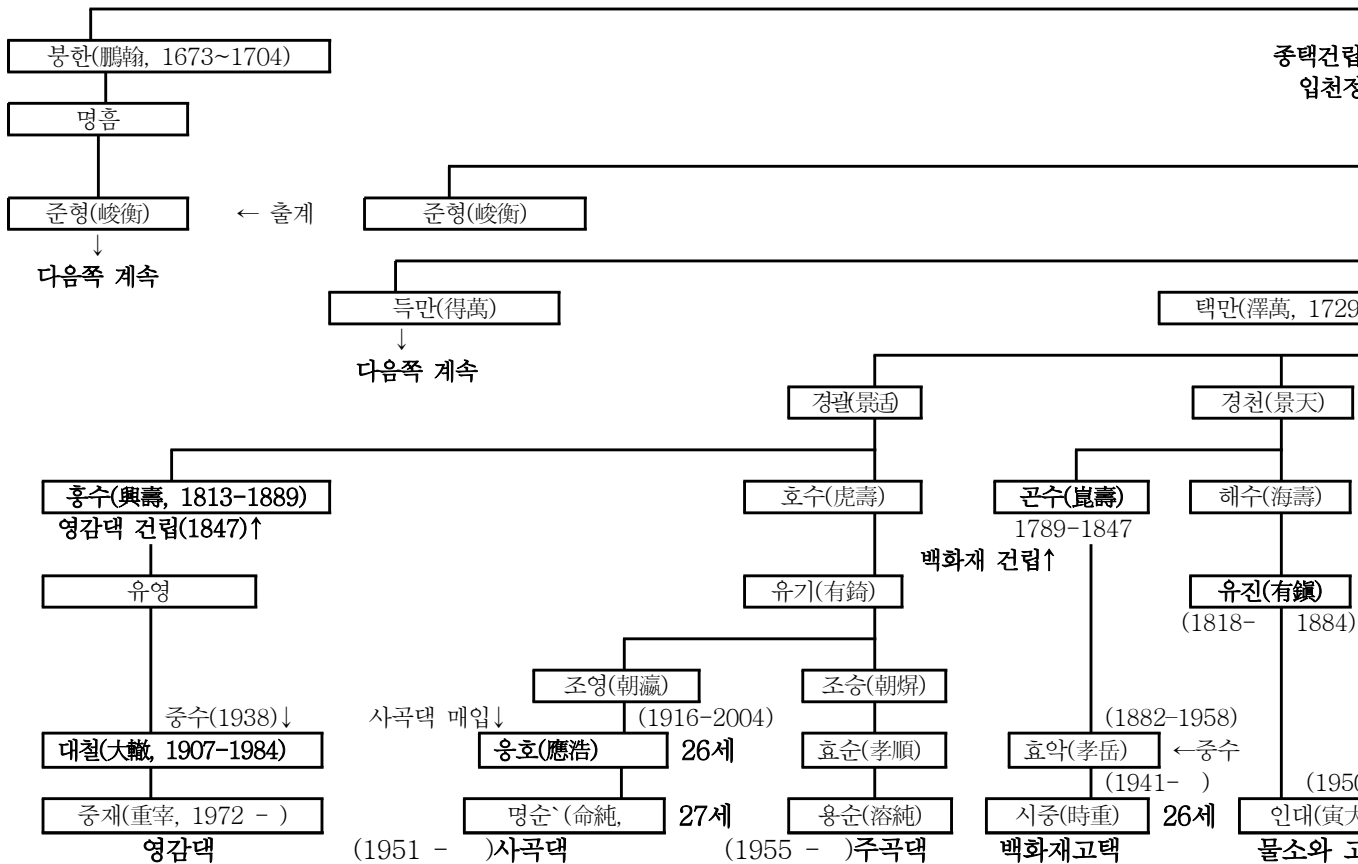
구분	등록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건립자와 시기
시도민속 문화재	제 75호	영양남씨 괴시파종택	1987.12.29	남 봉 익 (鵬 翼 , 1641-1687)
	제 168호	영덕 괴시동 대남택	2013.04.08	준형(峻衡, 1703-1778)
	제 169호	영덕 괴시동 물소와고택	2013.04.08	유진(有鎭, 1818-1884)
	제 170호	영덕 괴시동 해촌고택	2013.04.08	극만(極萬, 1794-1862) 1775년
문화재 자료	제 378호	영덕천전택	1999.12.30	유용(有鏞, 1842-1899) 1876년
	제 392호	영해입천정	2000.09.04	봉익(鵬翼, 1641-1687) 1680년대
	제 393호	영해주곡택	2000.09.04	18세기(1919년재건축)
	제 394호	물소와서당	2000.09.04	택만(澤萬, 1729-1810) 1849
	제 395호	영해경주택	2000.09.04	봉수(鳳壽, 1811-1864)
	제 396호	영해구계택	2000.09.04	경악(景岳, 1763-1821)
	제 397호	괴시리괴정	2000.09.04	준형 1776년
	제 424호	영덕 괴시리 영감택	2002.07.15	흥수(興壽, 1813-1889) 1847년
	제 425호	영덕 괴시리 사곡택	2002.07.15	용(鎔, 1856-1934)
	제 459호	영덕 괴시리 영은고택	2004.03.11	공수(公壽, 1783-1875) 1871년
	제 460호	영덕 괴시리 스므나골재사	2004.03.11	준형(峻衡, 1703-1778) 묘소 관리재사 1780년대 건립
	제 629호	영덕 백화재고택	2004. 03 11	곤수(崑壽, 1789-1847) 1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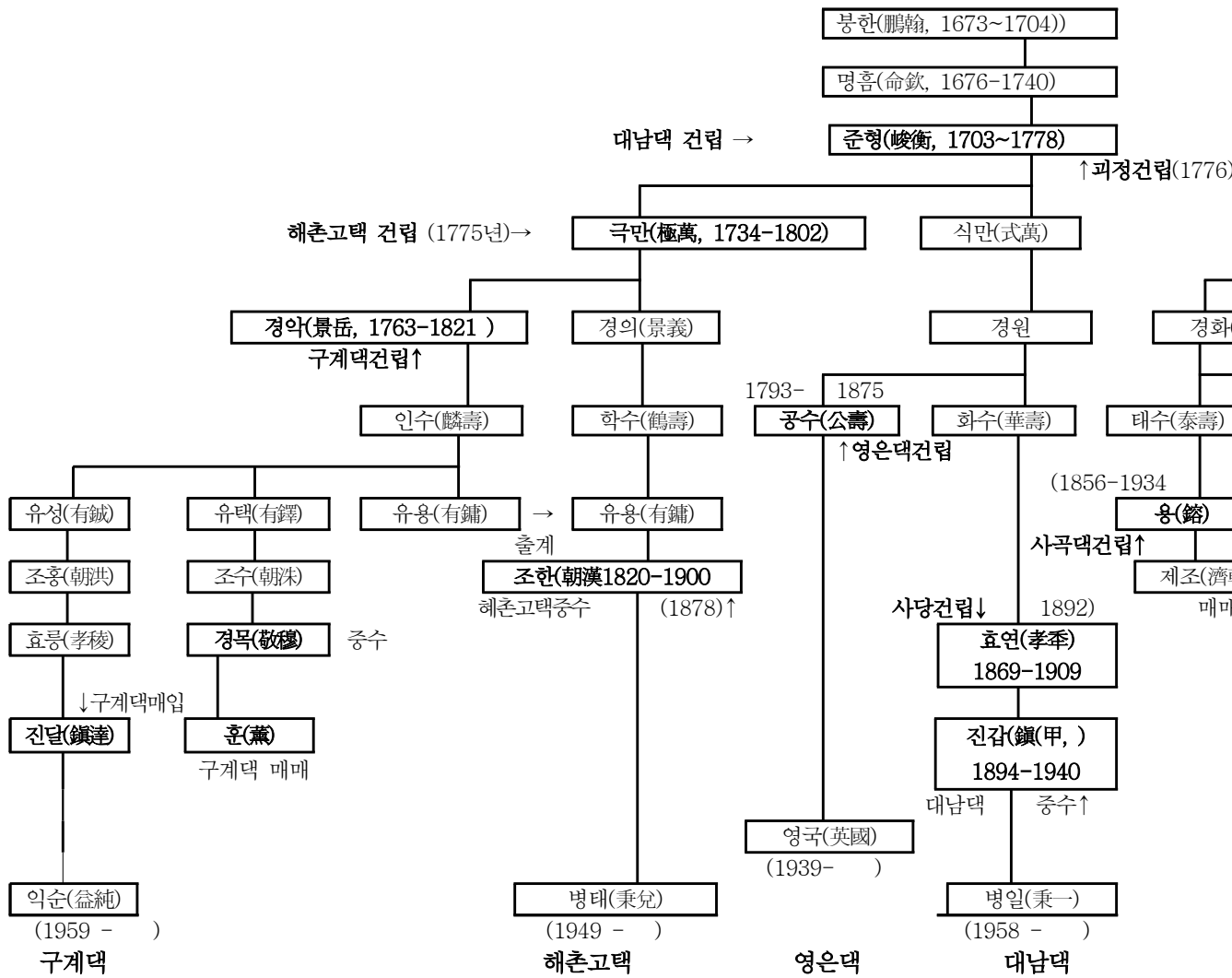
[표 2] 각 집들의 관계도

시조 영의공(始祖 英毅公, 남민(南敏)) → 1세 홍보(洪輔) → 8세 영해입향조 수(須) → 괴시파조

괴시마을 수안김씨와 혼인

괴시입향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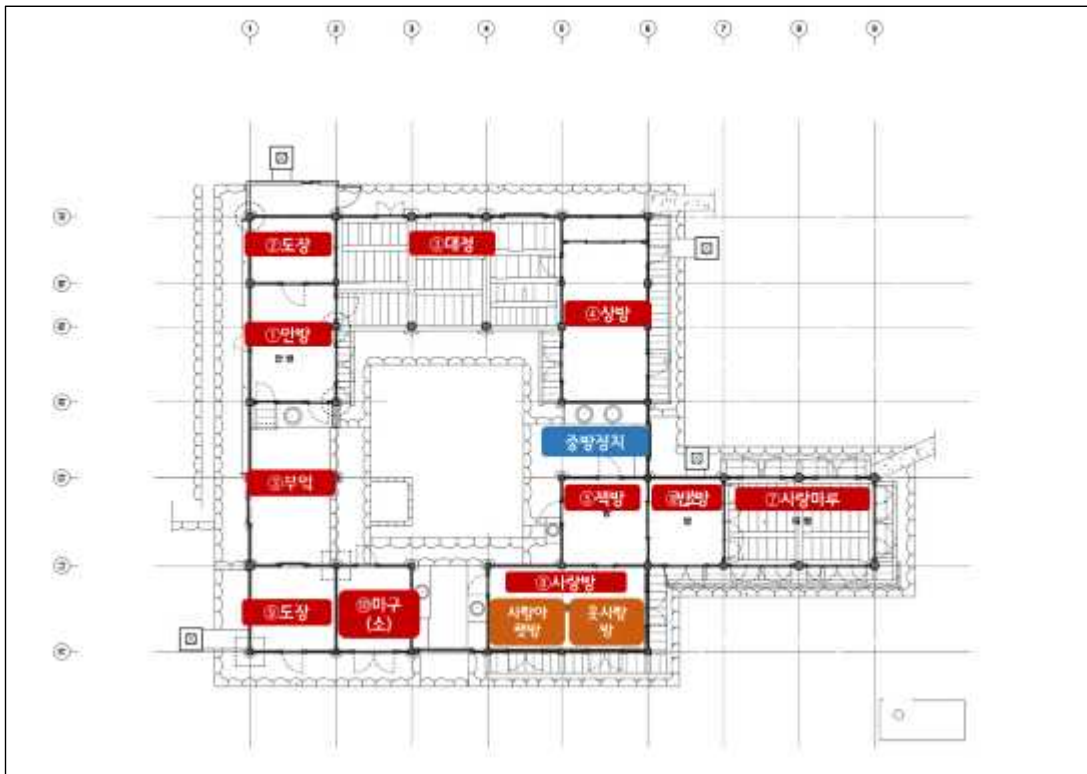




살림집의 주거공간은 괴시파 종택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종택을 지은 남봉익(南鵬翼, 1641~1687)은 영양남씨 괴시문중의 입향조 남두원((1610-1674)의 아들로, 1672년 대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영산현령을 역임하였다. 17세기 말 종택이 건립된 이후 몇 차례 중수하였다. 1919년경에는 전체적인 부재(部材)를 교체하고, 기와를 새로 얹었으며, 1984년경 노후한 부재를 교체 및 부분적인 수리를 단행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일부 보수하였다.

종택의 규모는 앞면 8칸, 측면 6칸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대저택이며, 경북 북부지역의 주거양식인 기와집 형식의 ‘口’자 형태의 구조에 사랑채가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왼쪽에 중문과 본채, 오른쪽에는 3칸 규모의 사랑채가 있다. 사랑채 옆에는 불천위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 이 고택은 17세기 말에 처음 지어졌으나, 최근 1980년대 중반, 2015년에 크게 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낡고 고풍스러운 고택의 멋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고택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사당은 1900년대 초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침의 우측에 자리하고 있다. 이 종택은 경북 민속문화재 제75호(1987. 12. 29)로 지정되어 있다.



괴시파 종택의 평면구성

① 안방

전통고택에서 주로 안방은 여성이 사용했던 방이며, 괴시파 종택에서도 남영걸 종손의 조모가 썼고, 조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사용하였다. 과거 안방에는 고가구의 하나인 ‘반닫이’ 형태의 작은 농이 있었으며, 찬장을 두어 각종 물품을 보관하였다. 안방 내부에는 ‘도장’이라는 공간 형태의 작은 창고가 있으며, 이를 두고 안방 내 도장이라 하여 ‘안도장’이라고 불리었다. 종택의 ‘안도장’에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쌀, 보리 등의 곡식과 함께 대나무 껍질이 있었다고 전한다. 안도장 안에 보관했던 대나무 껍질에는 종손의 할머니가 직접 쓴 내방 가사가 들

어 있었다고 전한다. 내방가사는 조선 후기 영남지방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가사 형태의 문학 장르로, 경북에서는 ‘두루마리’라고도 불리었다. 과거 양반마을의 가풍을 유지하던 괴시(호지)마을의 부녀자들도 내방가사를 많이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두루마리를 보관하였던 대나무 껍질과 함께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한 낫그릇을 보관하였다. 현재 안도장은 현대식 화장실로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대청

안방과 상방 사이에 있는 괴시 종택의 대청마루는 여름철 막힘없는 시원한 바람길을 제공해주어, 여기에다 시렁을 놓아 반찬, 젓갈 등의 식재료를 보관하였다. 현재 시렁은 철거하였으나, 안도장 쪽에 일부가 남아있다. 그리고 괴시종택의 대청은 장례가 발생하였을 때, 제관들이 손님을 맞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③ 상방과 중방

괴시종택의 상방은 남쪽에 있어서 별이 많이 들어 살기에 여러모로 좋았다는 구술이 많았다. 초기에는 중부 정영자씨의 시누이가 거처를 한 곳으로, 바깥 출입문을 개방하면 툇마루가 있었는데, 여성들이 잠시 쉬기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과거에는 상방과 중방 사이에 나무로 된 문을 두고 나뉘어 있었으나, 약 50여 년 전 방을 통합하였다. 시누이가 혼인을 하여 출가한 후에는 정영자씨의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상방에서 거처하였다고 한다. 대청에서 상방을 출입하기 위한 문 위에는 소반을 보관하기 위한 시렁이 있다.

④ 사랑채

전통한옥의 사랑채는 남성들의 공간이자, 손님맞이를 위한 공간이었다. 괴시종택의 사랑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이곳 사랑채는 날개집의 형태로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괴시종택의 사랑채는 사랑방(2칸), 책방(1칸), 빈소방(1칸), 사랑마루(2칸)으로 총 6칸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사랑방과 사랑마루의 앞뒤로 툇마루가 조성되어 있다.

책방은 과거 책, 문집, 귀중품, 궤 등을 보관하였으며, 높이가 다른 방에 비해 낮았으나, 현재는 보수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빈소방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으나, 초상이 발생했을 때 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으며, 특별히 부르는 호칭은 없었다. 사랑방은 사랑아랫방과 윗사랑방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랑아랫방은 종손과 할아버지가 거처했으며, 윗사랑방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남영걸 종손의 선친인 남병철(1938년생) 씨가 거처를 하던 방이었다.

⑤ 행랑채

괴시종택의 행랑채는 바깥 도장(1칸)과 마구(1칸)로, 총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 도장은 곳간으로 과거 부피가 큰 물건을 보관하였으며, 마구에서는 닭을 키웠다고 전한다.

⑥ 사당

사랑채 옆에 위치한 불천위 조상을 모시는 사당은 앞면 3칸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뒷간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사당의 형태를 하고 있다. 사당에서는 명절 제사 및 기제사를 지내고 있다.

괴시(호지)마을에 사당이 있는 집은 종택을 포함하여 준형(峻衡, 1703~1778)이 건립했다는 대남택과 극만(極萬, 1734-1802)이 건립했다는 해촌고택 3가구다. 대남택은 1892년, 해촌고택은 1936년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괴시(호지)마을에서는 각 집이 사당 보다 감실을 두고 있었다. 해촌고택도 사당을 건립 하기 전 감실이 있었고, 사당도 내부구조가 감실형식으로 되어 있다. 감실은 빈소방으로 겸하고 있기도 하다. 종택에도 빈소방이 있는데, 사당 건립 이전 감실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VII. 문헌과 민속자료

괴시(호지)마을 영양남씨는 개인별로 여러 문헌과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입향조 두원(斗遠, 1610~1674)의 6세손이자 장자인 봉익(鵬翼, 641~1687)의 5세손 흥수(興壽, 1813-1889)가 건립한 영감택에서 소장한 자료가 방대하다.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는 고서 285종 702책, 고문서 4,603종 4603점, 서화류 57종 57점, 근현대류 539종 539점, 목판류 5종 5점, 기타 10종 11점 등 총 5,499종, 5,917점이다. 이외에 마을 주민들이 소장한 제기류와 농기류 그리고 사진 자료들은 마을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마을과 관련문서로 수리시설인 보에 관련한 문서로 < 1852년 읍평보중(邑坪洑中)완의(完議)>, 마을의 동제에 관한 논의한 합의 사항 등을 기록한 < 병자년동중완의(洞中完議)>, 촌락공동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괴시접소(傀市接所) 운영 방침의 규정을 정하면서 작성한 자료 < 1876년 괴시접소안(傀市接所案)> 등이 있다. 영양남씨와 관련한 문서는 시체에 관한 기록으로 < 육소 장첩(六所藏帖)>, 괴정(槐亭)을 승수한 <연정중수일록(蓮亭重修日錄, 1882)>, 입천정 건립 과정에 관한 정보를 담은 <입천정중건일록(什川亭重建日錄, 1888)> 이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마을공동체 성원간의 상호 협력과 영양남씨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요 문서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1852년 읍평보중(邑坪洑中)완의(完議)>

수리시설인 보(洑)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직인 영해부(寧海府) 읍내면(邑內面) 소속 동(洞) 등 17개 동이 결성한 보중(洑中)에서 임자(철종3, 1852) 4월 16일에 보 소송과 관련한 사항을 합의하여 약속한 문서이다. 이 완의대로 원밖에 보중 계원들의 명단 200여 명이 17개 동 아래 기재되어 있는데 괴시(호지)마을을 포함한 대부분이 읍내면에 소속되어 있던 마을이다.

2. < 병자년동중완의(洞中完議)>

병자년 3월에 괴시(호지)마을에서 ‘동신제’와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논의, 합의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자료이다. 현재까지 괴시리에 이어 내려오고 있는 전통 민속행사로, 매년 음력 1월 15일 새벽 1~2시 사이에 설행 하고 있다. 이 완의는 괴시(호지)마을과 그 주변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민속자료이다. 이 자료는 내용으로 보아 1876년일 수 있으나, 1936년도 배제할 수 없다.

3. < 1876년 괴시접소안(傀市接所案) >

병자(고종13, 1876) 6월에 괴시접소(傀市接所) 운영 방침의 규정을 정하면서 작성한 자료이다. 기재 내용은 1941년 접소 창설 공의에서부터 저소 창설의 과정과 목적을 서술한 남홍수의 ‘접소창설기사(接所創設記事)’ 접소의 운영수칙 규정인 ‘절목(節目)’11조항 및 접소의 회원 39인의 이름을 기재한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4. < 육소 장첩 (六所 藏帖) >

괴시(호지)마을의 영양남씨 문중에서는 6곳에 묘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를 ‘육소(六所)’라고 한다. 묘제를 지내는 총 6개의 장소별로 장첩(壽洞齋藏帖, 熊倉齋藏帖, 柄谷齋藏帖, 釜谷齋藏帖, 炭洞齋藏帖, 仁川齋藏帖)이 있다. 장첩에는 일시, 제물, 축문 등 육소별로 시제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VIII. 조사자 의견

지정 신청한 괴시마을은 괴시1리로 ‘호지마을’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영양남씨 동성마을로서 현재 50여호가 거주하며, 40여호가 영양남씨다. 영양남씨가 소유한 가옥도 50여채이며, 모두 와가(瓦家)이다. 영양남씨가 영해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초기 용담군수였던 남수(南須, 1395-1477)가 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에 낙향하면서부터다. 이곳은 영해 5대 성씨 중 하나인 대흥백씨(大興白氏)의 세거지이며, 남수의 처가이기도 하다. 그 뒤 남수의 후손들은 영해를 비롯한 영양과 울진 등에 분파·분촌하여 세거지를 넓혀갔다.

남수(南須, 1395-1477) 손자의 차남인 세하(世夏, 1490-1572, 괴시파시조)의 손자 정방(靖邦, 1557-1592)이 괴시리에 거주하고 있던 수안김씨(遂安金氏)와 혼인으로 이 마을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괴시(호지)마을 실질적인 입향조는 정방의 손자 두원(斗遠, 1610-1674)이 처음 정착한 곳은 선주민들이 살고 있던 ‘중마골’이라고 한다. 그의 장남인 남봉익(南鵬翼, 1641-1687)이 현재의 종택을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 남두원의 차남 남봉한(南鵬翰, 1647-1706)이 선주민인 수안김씨(遂安金氏)와 혼인하고 아랫마을에 있는 지금의 대남택 자리로 분가했다. 그 후 삼남 남봉구(南鵬九, 1668-1702)의 후손인 남우형(南右衡, 1728-1781)도 수안김씨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였지만, 현재 이 마을에는 후손들이 거의 없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영양남씨는 괴시(호지)마을의 선주민들과 혼인관계를 영양남씨가 같이 살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남인들의 정계 진출이 막힌 상황으로 인해 괴시(호지)마을에서도 봉익(鵬翼, 1641-1687) 이후 이렇다 할 대과 급제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학문으로 여러 명의 유학자를 배출하였고, 영해평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반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영해 인근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경제력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해와 안동지역의 명문가와 혼인 관계를 맺고 학문적 교류에 힘을 썼으며, 괴시종택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면서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영양남씨가 마을을 주도하게 되었다. 괴시(호지)마을의 영양남씨는 영해지역의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성장하면서 혼인과 학맥 등을 통하여 향촌사회에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과 관련된 문화재로서 도민속문화재 4호, 도문화재자료 12호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50여개소의 고건축물과 전통적인 마을경관을 잘 보존되어 있다. 민속문화 자원으로서 주민자치 조직, 문중제례, 전통음식, 주거공간에 대한 이야기, 마을 신앙으로 ‘동제’, 민속놀이 등이 전승되거나 아직 주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많다. 전적과 고문서 그리고 제기, 농기구를 비롯한 등 여러 민구와 사진 등도 많아 소장되어 있다.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괴시(호지)마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치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괴시(호지)마을은 17세기 영양남씨들이 세거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재지사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과정과 마을내에서 어떻게 분파되어 거주지역을 확산해가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 영양남씨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남봉익(南鵬翼, 1641-1687) 이후 거의 없지만, 향촌사회에서 유학자로서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에는 영해 3.18만세운동을 주도하는 사회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집들은 중마골의 괴시파 종택을 중심으로 ‘윗말’과 ‘아랫말’로 분가하였다. 18세기에 꾸준한 분가로 마을은 영양남씨의 터전이 되고, 물소와고택을 중심으로 한 ‘윗말’과 괴정을 중심으로 한 ‘아랫말’의 경계가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을 경관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마을의 집들은 입향조 두원(斗遠, 1610~1674)의 세 아들 중 첫째 봉익(鵬翼, 1641~1687)과 둘째 봉한(鵬翰, 1673~1704)의 자손들이 거주한다. 봉익의 자손은 8호, 봉한의 4집이다. 입천정(廿川亭)은 봉익이 1680년경 건립하였고, 괴정(槐亭)은 봉익의 손자 준형(峻衡, 1703~1778)이 1776년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준형은 원래 봉익의 손자지만, 봉한의 아들 명흠(命欽, 1690~1740)에게 양자로 갔다. 명흠도 봉익의 둘째 아들로 봉한에게 양자를 갖다. 괴시(호지)마을의 영양남씨 각 집들은 입향조 두원(斗遠, 1610~1674) 아래의 여러 자손들이 양자(養子)관계로 많이 엮어져 있다.

2. 괴시(호지)마을은 행정적인 조직보다 자치조직으로 괴시파 문중을 중심으로 한 ‘중친회’가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효(孝)를 실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조직으로 ‘노인소(老人所)’을 운영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2000년대에 추진한 유교문화개발사업을 계기로 조직된 ‘괴시전통마을 보존회’가 문화재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마을과 함께 하는 ‘치현계’나 ‘대동계’를 통하여 다른 마을과 관계를 엮을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동가(洞歌)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3. 주거공간은 많은 집이 □형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되고, 각 방들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안방에는 곳간 형태의 ‘안도장’ 있었다는 것 등도 이 마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랑채에는 사랑방 이외에 감실이 있어 조상의 위패를 모셨고, 빈소방으로도 이용하였다. 이 마을은 괴시파 종택, 대남택, 혜촌고택 이외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없다. 하지만, 이들 3집도 모두 1890년대 이후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들 집에도 그 전에 감실에 조상의 위패를 모신 것으로 보인다.

4. 세시풍속은 거의 사졌지만, 민속놀이로서 ‘척사놀이’나 마작 등이 전승되고, 줄당기거나 그네뛰기 같은 민속놀이는 참여한 사람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복원 가능한 놀이다.

해안마을로서 특징적인 것은 ‘관해(觀海)’라는 것이 있었다. 내륙에서 손님이 오거나 친정 식구들이 오면 바다를 구경시키는 풍속이다. 마을에서 3살 터울의 세대가 묶여 노는 ‘류(類)’라는 것도 전승되고 있다.

5. 대부분의 씨족집단이 그러하듯 괴시(호지)마을 영양남씨도 문중성원 전체가 개별적인 기제사나 명절제사 뿐만 아니라 묘제에 이르기까지 조상숭배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묘제는 조상들의 묘소의 위치에 따라 6곳으로 나눈 ‘육소(六所)’에서 담당하여 준비하여 조상을 모시는 문중의 행사이다.

6. 마을의 공동체 신앙으로 동제(洞祭)는 ‘큰동신’과 ‘작은동신’ 두 곳에서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타성은 ‘작은 동신당’, 영양남씨는 ‘큰동신당’서 따로 지냈으나 현재 함께 지낸다. 특히 동제에 관한 문서로 병자년(丙子年)에 작성한 ‘동제완의(洞祭完議)’가 남아 있어 동제의 역사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으로 보아 인근 해안마을과 상호부조하는 관습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괴시(호지)마을에서는 해안마을에서 별신굿을 하면 부조를 하였다. 또 괴시(호지)마을에 동제 지내기가 어려웠을 때, 해안마을에서 부조한 기록이 보인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성마을과 바닷가마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7. 마을의 음식으로 이른바 ‘안동스타일 칼국수’를 접빈(接賓) 음식으로 내놓는다. 이것은 안동지역과 혼반(婚班)을 통하여 시집 온 며느리들에게 전승된 음식이라는 뜻일 것이다. 동해안 일대에 남아있는 ‘어식혜(魚食醢)’에서 생선(魚)이 빠진 ‘소식혜(素食醢)’ 등도 전승되고 있다.

제례음식에서 해안이 가까운 마을로 내륙지역 보다 방어와 참가자미, 문어 등 해산물이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8. 마을의 역사성이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고문서나, 민속자료, 사진 등은 앞으로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은 ‘마을역사문화관’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괴시(호지)마을은 한 마을의 역사적인 변천과 향촌사회의 변화상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이면, 괴시(호지)마을은 등록문화재 제762호로 지정된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가까운(도보 20분) 마을로 민속마을 지정은 문화재 활용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영덕 괴시마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동쪽에 산을 등지고 서향한 마을로 마을 아래에는 오십천이 외수를 이루고 있으며 동해안과 매우 가깝지만 해안마을의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연혁·유래 및 특징	괴시마을은 안동 다음으로 뜰집이 많은데 영양남씨 15대손 남두원이 입향하여 안동지역과 통혼 및 학맥, 분가를 하면서 영양남씨 뜰집 집성촌이 되었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뜰집은 많지 않은 유형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태백산맥 동서 양안에 분포하는데 안동과 달리 조선후기 뜰집의 변화상을 볼 수 있고 개경에서 안동을 거쳐 영덕 지방까지의 전과과정을 역사와 인문적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윗말과 아랫말, 중마골 및 동쪽 배산의 일부를 포함한 지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괴시마을의 뜰집은 개경에서 영덕까지의 전이과정과 시간적 변화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또 유교 및 인문 요인이 건축에 미친 영향과 변화과정을 건물을 통해 상세히 읽을 수 있는 건축적 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9일

제출자

문화재청장 귀하

영덕 괴시마을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위원 ○○○

①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 영덕 괴시마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

1)마을의 입지와 자연환경

괴시마을(호지마을)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전통마을로 태백산맥 동쪽 동해안 가까이에 위치한다. 영덕군은 서쪽으로는 영양과 청송과 경계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울진, 남쪽으로는 포항과 접하고 있다. 괴시마을이 있는 영해는 북쪽으로 태백산맥에서 발원한 송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동쪽으로 빠지며 남쪽으로는 역시 태백산맥에서 발원한 오십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동해안으로 빠진다. 괴시마을 동쪽에는 해발 286m 정도의 대소산이 놓여 상대산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동해의 해안과는 차단하고 있다. 이 산으로 인해 해안마을로 보기는 어렵고 마을도 대소산의 서쪽 구릉에 위치하여 서향을 하고 있다. 마을 서남쪽은 송천의 영해평야가 펼쳐져 있고 영해면 시가지와 접하고 있다. 괴시마을은 괴시 1,2,3리 중에 괴시1리에 속하며 마을은 중앙의 중마골을 경계로 남쪽이 윗말, 북쪽이 아랫말이다.

2)마을의 입향과 인문환경

현재의 영덕군은 조선시대 영덕현과 영해도호부가 1914년에 합병되면서 생긴 것이다. 지금의 영해는 삼한시대에는 우시국(于尸國)이라고 칭하였으며 고려 태조 때에는 예주(禮州)로 불렸으며 충선왕 2년에 영해부(寧海府)로 고쳤다. 조선 태조13년(1413)에는 도호부가 되었다가 고종32년(1895)에 영해군이 되었다. 1914년에 영덕군으로 통합되었다.

괴시마을은 현재 영양남씨가 가장 번성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시작은 고려 말 함창이씨가 처음으로 여기에 터를 잡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마을 주변으로는 늪이 많고 북쪽에는 호지(濠池)가 있어서 호지촌으로 불렸다. 이후 수안김씨, 영해신씨를 거쳐 1630년경 영양남씨가 정착하면서 영양남씨 집성촌이 되었다.

영양남씨의 시조는 남민으로 본래 당나라 사람이었으나 155년에 당나라의 안렴사로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태풍을 만나 영덕의 죽도에 표류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정착하게 되었다. 경덕왕은 그가 여남에서 왔다고 하여 남씨로 성을 내리고 이름을 민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으며 영양현을 식읍으로 내렸다. 이로써 영양남씨의 시조가 되었고 남민의 6세손인 고려 대장군 남진용의 아들 대에 이르러 3개의 성씨로 분파되었다. 장남 남홍보가 영양남씨를 유지하고, 차남 남군보는 의령남씨, 삼남 남광보는 고성남씨로 분관되었다. 괴시마을의 영양남씨 괴시파는 남홍보의 7세손인

남영번의 네 아들에 의해 4개 지파로 과시조가 되었다. 과시파는 사남 남수(南須)의 후손이다. 남수는 조선 세종 때에 벼슬길에 올랐으나 단종이 수양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버리고 부인 대흥백씨의 세거지였던 영해군 창수면 인량리로 낙향하였다. 이후 남수의 후손들은 인량마을을 시작으로 영해의 여러 지역에 이동하여 거주하였다. 과시마을은 인량리와 4km 정도 떨어져 있다. 남수의 3세손에 이르러 장남은 인량리에 남고 차남 이하의 아들들은 영해 원구마을, 청송, 예천 등으로 이주하였다. 차남인 세하의 손자 남정방이 과시리에 거주하고 있던 수안김씨와 혼인하게 되면서 과시마을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남정방은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과시마을 입향조는 세하의 4세손 남두원으로 보고 있다. 영양남씨의 15대손에 해당한다. 남두원의 장남 남봉익(1641-1687)은 낙향하여 스무나무골 입천정과 영양남씨 과시파종택을 지었다. 차남 남봉한(1647-1706)은 수안김씨와 혼인으로 분가하여 대남택을 지었다. 입향 초기에는 선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형성하다가 18세기에 영양남씨들의 분가가 이루어져서 과시파종택을 중심으로 한 윗말과 대남택을 중심으로 한 아랫말의 경계가 나타났다. 19세기에 더욱 번성하여 윗말을 중심으로 영양남씨의 동성촌락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윗말의 과시파종택과 물소와고택, 그리고 아랫말의 대남택과 해촌고택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가옥이 되었다.

④ 연혁 · 유래 및 특징

1) 마을의 구조와 배치 특징

과시마을은 동쪽에 상대산과 대소산을 연결하는 산맥을 등지고 서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앞 송천평야와는 예주길로 경계를 나누고 있으며 예주길과 나란한 호지마을1길이 마을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마을 길이다. 남북 길 중간 정도에서는 중마골로 통하는 동서 교차로가 놓여 이 십자 교차로가 아랫말과 윗말, 중마골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되었다. 각 집에 이르는 길은 남북 주도로에서 동서로 가지형으로 놓였다. 전체적으로 마을 길은 나뭇가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옥의 배치는 동쪽에 산을 등지고 있는 지형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서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의 규모는 윗말이 크며 마을에는 윗말과 아랫말을 가로지르는 안길이 있다. 아랫말은 안길의 동쪽 산밑에 주로 가옥들이 분포하며 서향으로 배치하였다. 윗말은 안길 양쪽에 가옥들이 있는데 안길 동쪽은 서향으로 배치하고 안길 서쪽은 남향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길 서편에서도 주곡택과 영감택은 서향으로 배치하였다.

가옥은 ‘ㄱ’자형의 뜰집이 주류를 이루는데 안채의 주향은 서향이더라도 앞쪽에 붙어 있는 사랑채는 남향으로 배치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남향을 선호하지만 지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마을과 가옥의 주향은 서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옥의 배치와 평면 특징

가옥 대부분은 ‘ㄱ’자형의 뜰집으로 채 분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배치는 향

과 지형 정도만 고려되었을 뿐 매우 단순하다. 그동안 뜰집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괴시파종택과 대남택, 해촌고택의 경우에는 채가 분리된 사당이 있지만 사당도 20세기에 추가로 건립된 것으로 원래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부속채가 하나로 연결되어 ‘口’자 형을 이루는 주택을 안동에서는 뜰집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안동을 시작으로 지리적으로 소통이 있었던 청송과 영주, 봉화, 울진, 영덕, 그리고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경기도 강화에서도 일부 나타나는데 영동지역에 비해서 지역성 연계성은 약하다.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뜰집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 개국공신들의 후손이라는 측면에서 조정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상류계층이 개경의 가옥을 모방하여 지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안동지방의 뜰집은 태백산맥 양사면에 혼인을 통한 교류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처럼 폐쇄형 주택을 지은 것은 부녀유폐와 동남축에 많이 거주하였던 남인계와 연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3. 가옥의 현재 명칭과 1988년 보고서 명칭 비교 및 건립연대

즉 고려 개국공신인 안동군 삼태사(三太師) 가문인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장씨와 청송군의 평산심씨 가문의 주택에서 뜰집이 주로 나타나며 연대가 비교적 오래되고 정형이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청송과 영양의 뜰집은 개경의 뜰

집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로 이어지는 가문과 이들과 교류했던 가문에서 뜰집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그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란 시 공적을 세운 가문의 뜰집이 규모도 크고 외관이 화려하다. 이것은 뜰집의 시대적 변천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뜰집의 확산은 학문적 교류와 더불어 통혼을 통하여 태백산맥을 넘나들면서 확산되었다. 영덕지방의 무안박씨, 재령이씨, 영양남씨는 태백산맥을 넘어 안동권과 혼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역시 뜰집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통혼에 의해서는 본가만이 아니라 외가의 건축유형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서 당시 학맥과 통혼이 건축에 미친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전국에 분포하는 뜰집 가운데 안동문화권에 70%가 분포하기 때문에 뜰집은 안동문화권의 건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고려 개국공신 가문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개경의 주택과 긴밀하게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다음은 봉화가 16%, 영덕이 15%, 영양이 11% 순서로 나타난다. 영덕이 뜰집으로는 봉화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영덕군을 소안동으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덕 지방에서 가장 먼저 건축된 뜰집은 재령이씨의 영덕 충효당이다. 15세기 후반에 지은 것으로 사당은 후대에 건축한 것이다. 가운데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 날개에 도방, 안방, 부엌을 배치하였고 남동쪽에 사랑채를 연결했는데 사랑채가 커지면서 가운데 마당이 좌우로 길어졌다. 영덕지방은 주로 17세기에 뜰집이 지어졌는데 이주와 분과와 관련되어 있다.

영양남씨는 인량리에서 10세 남비가 1500년 전후 인근의 원구리로 이주하였고 그의 후손이 1624년에 처음으로 영양남씨의 뜰집인 난고종택을 건축하였다. 15세 두원(1610-1672)은 인량리에서 영해읍 괴시리 호지마을로 분과하여 그의 아들이 괴시종택을 건축하였다. 원구리의 난고종택은 이전에 건축된 인량리의 삼백당 및 원구리의 무안박씨 경수당(1570년)과 평면적 유사성이 매우 깊다.

난고종택의 본채는 양통으로 가운데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 날개에 고방, 안방, 부엌을 배치하고 우측에 상방을 배치한 정형평면이다. 앞쪽에는 마구간과 사랑을 배치했다. 괴시마을의 최초 뜰집인 괴시종택도 유사한 평면인데 본채가 전퇴형이고 가운데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 날개에 고방, 안방, 부엌을 배치하고 우측에 상방을 배치한 것까지는 일치한다. 그러나 사랑방을 우측 앞쪽으로 배치하고 작은 사랑을 책방에서 3칸을 우측으로 날개를 달아내 사랑채를 매우 크게 구성하였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즉 안동권 정형의 뜰집에 사랑채가 매우 강조된 날개형 뜰집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 괴시마을은 조선후기 19세기이후 뜰집의 변천과정을 볼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최초 입향가옥인 괴시종택은 동쪽에 산을 등지고 있는 마을의 특성상 서향하여 지었는데 후기집들은 안채는 서향을 하고 사랑채는 남향을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랑채의 평면이 커지고, 정형의 맞배지붕에서 팔작지붕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다양하게 보인다.

뜰집이 다른 가옥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당의 설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가 되면 사당을 별동으로 짓기 마련인데 뜰집은 오랫동안 별동의 사당 보다는 안채 또는 사랑채에 감실을 두어서 여기에 위패를 모셨다. 사당이 있는 괴시과종택, 대남택, 혜촌고택도 처음부터 사당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우 늦은 20세기 들어서 추가로 건립한 것이다. 윗말의 괴시과종택, 물소와고택과 아랫말의 대남택, 혜촌고택은 후대의 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가옥들이다. 윗말의 물소와고택, 영감택, 사곡택에서는 감실이 안채의 상방 위쪽에 위치한다. 제례 시에는 안채 감실에서 신위를 모시고 나와 사랑채 정침에 모시고 사랑 마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후대의 가옥에서는 사랑채에 감실을 두고 사랑채에서 제사를 지냈다. 대남택과 혜촌고택은 사당이 생기기 전에는 사랑채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경우 사랑채에 뒷마루가 붙어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윗말의 물소와고택의 기본적인 평면구성은 괴시과 종택과 같으나 우측 상방 위쪽에 감실이 있고 사랑채가 남향으로 배치됨과 동시에 규모가 커져서 중정 마당이 종축으로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랫말의 대남택은 괴시과종택과 달리 안채가 양통이며 대청이 2칸으로 좁아져서 마당이 종축으로 길어져서 깊이감이 생겼다. 대청 좌우 날개의 구성은 좌측은 도장방, 안방, 부엌이고 우측은 상방으로 뜰집 정형평면을 이루고 있다. 다만 사랑채는 우측 앞쪽 모서리에 ‘ㄱ’형으로 만들었고 남쪽을 정면으로 한다. 혜촌고택도 대남택과 평면구성이 거의 유사하며 대청도 양통으로 2칸이다. 다만 사랑채가 ‘一’자형으로 남향으로 배치하였다.

괴시마을은 안동 다음으로 봉화와 유사하게 뜰집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해 바다와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자연환경의 영향보다는 학맥과 통혼 등의 인문적 요인에 의해 마을과 가옥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뜰집은 영양남씨가 입촌하면서 시작되어 18-19세기 통혼과 분가에 의해 왕성하게 지어졌다. 일제강점기와 근대기를 거치면서 개축되거나 새로 지어진 가옥들은 뜰집 보다는 6칸 양통이나 8칸 양통으로 지어졌다. 제례나 유교적 규범보다는 실용성으로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가옥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마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역사적 가치

괴시마을은 고려 말 함창이씨가 처음으로 여기에 터를 잡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수안김씨, 영해신씨를 거쳐 1630년경 영양남씨가 정착하면서 영양남씨 집성촌이 되었다. 괴시마을의 가옥들은 채 분화 없이 안채와 사랑채, 우사 및 행랑 등이 하나로 연결된 ‘ㄱ’자형의 뜰집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옥의 형태는 영양남씨의 입촌과 관련이 있으며 이외에도 영덕지방의 무안박씨, 재령이씨, 영양남씨는 태백산맥을 넘어 안동권과 통혼을 통해 뜰집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안동권의 뜰집은 고려 개국공신인 삼태사 씨족과 관련 있는 지역으로 개경지역 폐쇄형 가옥의 영향을 받아

지은 집들이다.

괴시마을의 뜰집은 영양남씨에 의해 17세기에 유입되어 18-19세기 학맥과 통훈, 분가에 의해 왕성하게 번성하였고 괴시마을 가옥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괴시마을과 가옥은 고려말 개경을 시작으로 안동을 거쳐 태백산맥을 넘어 조선후기 영덕에 이르기까지 건축문화의 전파와 자연요인 보다는 학맥, 통훈, 분가 등 인문적 요인에 의한 건축의 영향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건축 및 미적 가치

괴시마을의 뜰집은 대부분 18-19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안동지역보다 늦다. 따라서 안동지역은 초기 뜰집의 정형을 보여주지만 괴시마을은 조선후기 생활과 유교 제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변모하였다. 또 뜰집은 채 분리 없이 안채와 사랑채, 행랑 등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지만 사당까지도 별동으로 두지 않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신위는 안채 상방 부근에 감실을 두어 봉안했으며 후에는 사랑채로 옮겨가는 현상도 나타난다. 20세기에는 괴시과종택, 대남택, 혜촌고택의 경우에는 일반 반가와 같이 사당을 별동으로 증축하였다.

감실이 사랑채로 옮겨지고 제례와 접객의 중심공간이 되면서 사랑채 부분은 퇴를 달아내고 칸을 늘리는 등 규모가 확장되고 팔작지붕의 도입으로 장식과 정면성을 강조하는 변화 등이 일어났다. 뜰집은 안채의 규모를 일자형으로 크게 만들지 않는 이상 중정 마당이 종축으로 긴 깊이감과 남인계열 가옥의 형식적 엄격성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제강점기와 근대기를 거치면서 새로 지어진 가옥들은 뜰집의 형식성을 탈피하여 연료와 실용성에 초점을 둔 6칸 양통이나 8칸 양통집으로 변화하였다. 괴시마을은 동쪽에 산을 등지고 있어서 마을과 가옥들이 대부분 서향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며 초기에는 괴시과종택과 같이 안채와 사랑채가 모두 서향이었으나 후기에는 사랑채는 남향으로 배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괴시마을의 가옥은 안동의 뜰집과 달리 조선후기 뜰집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또 대부분 서향인데 사랑채만을 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은 자연과 실용성에 의한 변화이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마을의 위치는 해안에 가까워 해안적 특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안동 내륙의 건축특징을 학맥, 통훈, 분가 등의 인문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괴시마을의 가옥들은 형식의 엄격성에서 실용성으로 옮겨가는 과정과 자연 요인보다는 인문 요인에 의해 건축이 변화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종합의견>

괴시마을 뜰집의 형성과정은 고려 개경에서 출발하여 고려 개국공신의 거점이었던 안동을 거쳐 조선후기 학맥과 통훈, 분가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정착했다고 하는 역사적 과정을 그림처럼 읽어 낼 수 있다는데 역사적 가치가 있다. 또

안채에 감실이 있었던 것에서 사랑채로 감실이 옮겨가고 20세기에는 사당으로 독립되는 과정을 통해 유교의례가 건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또 20세기 신축되는 가옥들은 규율과 엄격성으로 대표되는 뜰집을 탈피하여 연료와 기능적 실용성에 기반을 둔 양통집으로 바뀐 가옥들이 마을에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문적 요인에 의해 건축이 변화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읽을 수 있는 다양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 괴시마을의 건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괴시마을은 마을의 입향, 건축의 변화과정, 건축형태의 다양성, 희소한 뜰집의 분포상황에서 안동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조경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영덕 괴시마을(Goesi Village of Yeongdeok)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제출자

문화재청장 귀하

영덕 괴시마을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유자 : 괴시마을 보존회
- 주소 :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 신청인 : 경북지사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조선 시대에 영해부(寧海府)는 영양, 청송, 영덕을 관장하는 도호부(都護府)가 있어 경상도 동북부의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였다. 고종 32년(18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해군과 영덕군으로 나누어졌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영해면으로 강등되어 영덕군에 병합되었다.¹⁾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년)의 제자로 조선 전기 문신이자 학자인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년)은 영해에서 귀양살이하기도 했다. 양촌은 당시 영해의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해는 곧 옛적의 덕원(德原)인데, 산이 막히고 바닷가이므로 땅이 궁벽하고 구석져서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많고, 겨울에는 심한 추위가 없으며, 고기와 자라·전복과 조개 같은 해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다. 옛날 번성할 때에는 백성들이 풍요하고 송사가 드물며, 집집마다 거문고가 있어 사람마다 탈 줄을 알아, 노랫소리와 춤 태도가 맑고 고왔고, 정자와 누각의 경치에 있어서도 거의 선경(仙境)과 같았다. …²⁾

이러한 역사성과 입지환경을 바탕으로 영해 지역은 해안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반촌이 형성된 드문 사례를 보인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 퇴계 학통을 이어받은 여러 유학자를 배출함으로써 문향(文鄉)이라는 명성을 얻고 ‘소안동(小安東)’으로 불리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해 평야의 풍부한 물산이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 지역의 대표적 반촌 중 하나인 괴시(槐市)마을은 동해를 등지고 서북향으로 입지하고 있다. 마을 배후는 상대산(183.3m)과 봉화산(278.2m) 등 산지가 마을을 감싸며 거친 해풍을 막아준다. 마을 전면에는 넓게 펼쳐진 영해 평야와 이를 동서로 관통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송천(松川)이 있어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형국을 갖추고 있다.

『영양가록(英陽家錄)』 중 「괴시와 남씨세거(南氏世居)의 유래」에는 마을의 형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입자내룡(入字來龍)의 서향이고 입(入)자 교차지점이 무가정(務稼亭)인데 이곳이 목은의 태지(胎地)로 전해지고 입자내국(入字內局)만이 마을의 주기(主基)다. 입자외국(入字外局) 남쪽에 작지산(芍芝山)이 있기에 그쪽을 작지골의 와전(訛傳)된 말 ‘짜작골’, 그 앞 북편을 동서로 입천(入川, 시무내)이 관류한다 하여 ‘시무내골’, 입(入)자 교차지점인 무가정 쪽 입자내국의 중간골짜기를 준말인 ‘증막골’이라 부르고 외국(外局)의 북편에 호수가 있었다 하여 ‘호지골’이라 한다.³⁾

1) 일제가 영해군을 폐군한 것은 신돌석의 주도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격렬한 항일운동에 기인한다.
2) 寧海卽古德原也。阻山濱海。地僻而曠。夏多涼風。冬無苦寒。魚鱉蝮蛤海錯攸產。在昔盛時。民豐訟簡。家畜系桐。人知操縵。歌喉舞態。旣清以婉。至於亭臺之勝。殆若仙境。…。 『양촌집(陽村集)』 「영해부 서문루기(寧海府西門樓記)」.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3) 『영양가록(英陽家錄)』 (1991). p. 237.

마을은 중막골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다시 윗말, 아랫말로 영역이 세분되며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과 문중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마을의 원래 명칭은 송천 주변에 늪이 많고 마을 북쪽에 호지(濠池)가 있어 ‘호지촌(濠池村)’ 혹은 ‘호지말’이라 했다. 괴시라는 명칭은 이곳에서 출생한 목은 이색으로부터 유래한다. 괴정(槐亭) 남준형(南峻衡, 1703~1778년)은 「괴시유사지(槐市遺事識)」에 마을의 지명 유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호지를 괴시로 고친 것은 선생이 일찍이 상국(上國)에서 벼슬할 적에 학사방(學士坊)의 ‘괴시’ 두 글자를 따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름을 정한 것이니, 그 물과 언덕의 풍연(風煙)이 저 원나라의 그곳과 넉넉히 합하기 때문이라.⁴⁾

현재는 ‘괴시’가 법정동명으로 자리 잡았으나 마을 주민과 인근에서는 고려 말 내지 조선 초기에 사용하던 ‘호지’라는 원래 지명을 함께 사용한다. 고려 말 이래 이곳에는 함창김씨(咸昌金氏)를 비롯해 한산이씨(韓山李氏), 수안김씨(遂安金氏), 영해신씨(寧海申氏), 신안주씨(新安朱氏) 등이 정착해왔다. 조선 인조 8년(1630년) 무렵에 영양남씨(英陽南氏)가 입주하게 된다.

괴시마을의 영양남씨 괴시과 입향조는 남두원(南斗遠, 1610~1674년)으로 벼슬을 마치고 낙향하여 이곳에 시거(始居)하였다. 입향조의 장남 입천(卍川) 남봉익(南鵬翼, 1641~1687년)은 현종 13년(1672년) 대과에 급제하고⁵⁾ 출사하였으며 낙향 후에 스므나무골에 입천정(卍川亭)⁶⁾과 윗말에 괴시과 종택(宗宅)을 지었다. 차남인 남봉한(南鵬翰)은 아랫말에 대남택(台南宅)을 지어 분가했으나 아들이 없어 형의 둘째 아들을 후사(後嗣)로 삼았다. 삼남 남봉구(南鵬九) 역시 윗말에 분가하였으나 지금은 그 후손이 없다. 이후 후손들이 지속해서 분가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인근의 안동권씨(安東權氏), 재령이씨(載寧 李氏) 등 명문가와 학문적 교류를 하고 혼인 등으로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이었던 타 성씨들은 점차 이주하였고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영양남씨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구릉을 등지고 서북향으로 입지한 마을의 지형 여건에 따라 마을 내 가옥은 대부분 서향으로 배치하였으나 지형적 제한이 덜한 아랫말에는 일부 남향 가옥도 있다. 마을의 고택은 경북 북부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口’자형 구조에 사랑채가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중에서 괴시과종택(槐市派宗宅), 대남택(台南宅), 물소와고택(勿小窩古宅), 해촌고택(海村古宅) 등은 시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마을 내에는 살림집 외에도 마을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는 교육시설도 있다. 호은(濠隱) 남흥수(南興

4) 『國譯 槐庄世稿』 제3권. 『괴정유고(槐亭遺稿)』. p. 175.

순조 13년(1813년)에 편찬한 『단양부지(丹陽府誌)』 고적(古跡) 조(條) ‘괴시리(槐市里)’에는, “부(府)의 동쪽 3리에 있다. 목은(牧隱) 이선생(李先生) 중원(中原)에 들어가 학사방(學士坊)에 머무를 때 그 이름을 물으니, 이에 괴시라 하였다 한다. 그 학사방의 위용(威容)을 아름답게 여겨 돌아와서는 이로써 그 마을의 이름으로 하였다 한다.(在府東三里 牧隱李先生入中原遊於學士坊問其名則乃槐市也 美其學士之威及歸仍以名其里云)”고 지명 유래를 밝혔다. 『영해향교지(寧海鄕校誌)』 (2013). p. 684에서 재인용.

5) 입천 남봉익은 영양남씨 괴시과 문중의 중심인물로 그가 과거에 급제한 날을 기념하여 매년 4월 18일에 영양남씨 괴시과 종친회가 열리는데 이를 ‘입천정(卍川亭) 취회(聚會)’라고 한다.

6) 입천정은 남봉익이 장수유식(藏修遊食)하던 곳으로 그의 사후에 정자가 허물어지고 유지(遺址)가 실전(失傳)되었는데 이를 애석히 여긴 5세손 남흥수(南興壽, 1813~1899년)가 동천(洞天) ‘마계(磨溪)’의 굽이에 터를 잡아 고종 25년(1888년)에 중건하였다. 「입천정 중건기(卍川亭重建記)」, 『괴장세고(槐庄世稿)』. pp. 68-72.

壽, 1813~1899년)는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후손들에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접계(接契)를 만들고 괴호서숙(槐濠書塾)을 지었다. 또 물소와서당(勿小窩書堂)은 남흥수의 조부 물소와(勿小窩) 남택만(南澤萬, 1729~1810년)의 학덕을 기리고 후손의 학업을 위한 곳이다. 현재 괴호서숙은 멸실되었고 편액만 남아 있다. 이들은 향촌 교육과 풍속 교화를 이루고 문중 후손들의 학업의 장을 경영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

단일 문중의 집성촌으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해온 괴시마을은 나름의 세시풍속, 민속신앙, 민속놀이, 문중 의례 등도 잘 전승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동제는 서열적 분화로 이원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매년 정월 보름에 지내는 ‘큰 동제’는 영양남씨가 주관하여 엄격한 유교식 제의를 따랐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내는 ‘작은 동제’의 제관은 영양남씨 이외의 타성 위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동신(洞神) 역시 ‘큰 동신’(동신할배, 할배)과 ‘작은 동신’(동신할매, 할매)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큰 동신은 마을의 중심 지역인 중마골 전면에 위치하며 액막이를 위해 세운 석장승이 있다. 작은 동신은 마을의 남측 변 스무나무골 초입에 있다. 두 동제는 각각 제의 집단과 제관, 제의, 제수, 금기 사항 등 모든 면에서 차별화되었다. 요즈음은 마을 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두 동제의 구분이 거의 사라지고 간소화되었다.

재지사족으로서 명성과 위상이 높았던 괴시마을은 이에 걸맞은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을 중요시했다. 특히 괴시마을의 접빈은 후하기로 이름났었고 문중은 이러한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이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해안지역이라는 괴시마을의 입지 특성을 반영한 ‘관해(觀海)’라는 독특한 접빈 풍습이다. 반상(班常)을 가리고 체면을 중시한 괴시마을 사람들은 평소에는 바닷가를 잘 가지 않았으나, 내륙에서 손님이나 친정 식구가 방문하였을 때 바다를 구경시켜주는 접빈예(接賓禮)를 ‘관해’라고 한다.⁷⁾ 관해를 통해 남성들은 뱃놀이나 시 짓기를 했고 여성들은 바다 구경과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괴시마을은 경북 북부 해안지방에서는 사례가 드문 반촌마을로 400여 년간 지속되어온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 민속 등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마을의 구성과 형태는 산과 하천, 평야 등 자연환경에 유기적으로 적응한 모습을 보인다.

원래 명칭은 마을 주변의 지형지물에서 딴 ‘호지’였으나, 이곳에서 탄생한 목은 이색의 행적에서 유래한 ‘괴시’라는 이름이 생겼다. 오늘날에도 마을 주민과 인근에서는 두 명칭을 병용하는데, 목은 사후 620여 년이 지난 것을 고려할 때 지명이 갖는 역사성과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내 가옥 군은 지형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택이 위치한 ‘윗말’과 ‘아랫말’로 영역이 구분되는데, 입향조 후손들의 분가, 정착 등 동족 마을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종법적 질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마을신앙인 동제 역시 영양남씨 중심의 큰 동제와 타 성씨가 주도하는 작은 동제로 이원화되었고 동신도 각기 별도로 존재한다. 마을 구성원 간 신분 등 서열적 요인이 동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에는 영양남씨 괴시과종택 등 민속문화재 4개소, 천전택 등 문화재자료 12개소의 시도지정문화재

7) ‘관해(觀海)’는 괴시마을의 정체성(正體性)을 강조할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마을 탐방, 고택 체험 등과 연계하여 계절별로 특화된 관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경북 북부지역의 반가 주택의 특징을 보이는 ‘口’자형 가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 내에 30여 채 고택이 있다.

괴시마을 고유의 민속신앙, 세시풍속, 문중 의례, 접빈례 등의 공동체 생활과 의식이 반영된 유·무형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반촌마을로써 접빈객을 중시했으며 해안지방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관해’라는 접빈 풍습이 특징적이다.

마을 주민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통해 마을의 전통을 보존, 전승하려는 합치된 의지가 강하다. 이를 위해 ‘괴시마을 보존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영양남씨 괴시파 문중뿐 아니라 마을의 타성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4. 종합의견

괴시마을은 경북 북부 해안지방에서는 사례가 드문 반촌마을로 400여 년간 지속되어온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 민속 등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괴시마을의 역사·기술·민속·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와 연구,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여러 과제(issue)가 예상된다. 이 중에서 마을 경관과 관련한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시대 변천과 새마을운동,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마을의 원형이 다소 변형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진 자료로만 남아 있는 해촌고택의 디딜 방앗간 등을 비롯한 마을 내 초가가 모두 멸실되었다. 또 마을 안길은 전반적인 골격은 유지하고 있으나 확폭과 포장, 배수 시설 등을 갖추는 과정을 거치며 마을의 연륜과는 어울리지 않는 생경한 모습이 되었다.

2) 고택의 마당 대다수가 잔디 공간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전통 주택에 있어서 마당은 시각적, 기능적, 공간적으로 중요한 ‘지표경관(地表景觀, floorscape)’ 요소이다. 서양 정원을 연상케 하는 잔디 공간(lawn space)은 고택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3) 현재는 멸실된 괴정(槐亭)의 지당(池塘)을 복원하여 마을의 경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괴정은 남준형(南峻衡, 1703~1778년)이 지었는데, “병술년(1778년, 영조 42)에 내가 몇 간의 초가를 지어 장수(藏修)하는 계획을 삼으면서 편액(扁額)을 걸고는, ‘괴시정(槐市亭)’이라 하였으니, ….”⁸⁾라고 했다. 괴정이 퇴락(頽落)하자 손자 줄헌(拙軒) 남경약(南景岳, 1763~1821년)이 중수하였는데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부 괴정부군(槐亭府君)이 일찍이 거처하시는 집 옆에 몇 간의 방과 당(堂)을 짓고, 그 앞에는 못을 파고 주위에 **회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서적을 모아 생도들의 강업(講業)하는 자료로 삼았으니, …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바람이 치고 비가 새서 거의 지탱하지 못하였다. … 병자년(1816년, 순조 16) 가을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제도와 간살이는 옛날 그대로 하되 사치함이 없고, 좌향(坐向)은 서쪽을 바꾸어 남쪽으로 하였으니, 겨울과 여름에 거처하기 편리함을 취하였다. 정축년(1817년, 순조 17) 봄에 수리를 마쳤다.⁹⁾

이후에 붕애(朋厓) 남화수(南華壽, 1781~1851년)는 괴정을 다시 한번 수리했는데, 그가 벗에게 보낸

8) 『國譯 槐庄世稿』 제3권. 『괴정유고(槐亭遺稿)』, 「괴정계첩서(槐亭稊帖序)」. pp. 177-179.

9) 『國譯 槐庄世稿』 제6권. 『줄헌유고(拙軒遺稿)』, 「선정중수시기사(先亭重修時記事)」. pp. 389-390.

간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연전에 할아버지의 **지정(池亭)**을 다시 수리하였는데, 이 정자는 우리 집사께서 전에 놀며 감상하던 곳입니다. 위치를 남향으로 옮겼고 한 자 남짓 높이도 올렸습니다. 정자 아래 옛 **못**을 파서 구비지게 하고 돌을 쌓아 **작은 섬**을 만들었으며, **꽃과 풀**을 옮겨 심고 동네에는 늙은 **해나무**와 성긴 **버드나무** 수십 그루를 심어 앞길을 가렸습니다. 봄과 여름이 바뀔 적마다 붉은 꽃과 푸르른 잎이 서로 여러 비추고 새와 물 흐르는 소리가 아래위에서 들리니 이것으로 만년에 늙음을 보낼 계획으로 삼습니다.¹⁰⁾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면, 괴정 앞에는 원래부터 지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대에 수리하며 지당에 중도(中島)를 조성하고 주변에는 해나무와 버드나무를 비롯해 각종 초화류를 심고 가꾸었다. 추후 조사와 고증을 통해 이를 잘 복원한다면 마을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경관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

10) 『國譯 槐庄世稿』 제7권. 『봉애유고(朋拙遺稿)』, 간찰, 여황기준(與黃基駿). pp. 446-447.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	직위(직책)	문화재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영덕(盈德) 괴시(槐市)마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괴시마을 주변 일곽		
		<보호물> 별도 해당사항 없음		
		<보호구역> 별도 해당사항 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마을 내 가옥 등 개별 문화재에 따른 기 고시된 허용기준을 토대로 보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민속마을에 부합되는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함.		
종합의견	괴시마을은 전통적 생활양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영양남씨 집성촌으로서의 내재적 질서와 함께 개별 가옥의 건축적 특징들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속마을로 통칭되는 ‘집단민속문화재 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 조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제출자

문화재청장 귀하

영덕 괴시마을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전문위원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괴시(槐市)마을은 행정구역상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에 위치하고 있는 영양남씨(英陽南氏) 집성촌이다. 마을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동남쪽으로 태백산맥이 길게 뻗어 내려오고 서쪽으로 영해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 너머로 송천(松川)이 서(西)에서 동(東)으로 흘러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다.
- 풍수(風水)의 배산임수(背山臨水) 관점에서 살펴볼 때, 마을이 동쪽의 산을 등지고 서쪽의 평야를 향해 열려 있는 형국은 마을 내 개별 가옥의 집터를 잡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가옥들의 경우 대부분이 중심축을 서향으로 하고 있다. 다만, 20세기 이후의 가옥들은 이러한 자연조건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의 편의 등을 위해 남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괴시마을이 비록 동해바다와 인접해 있지만, 영해평야를 생활과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근 영해면 서진리와 대진리 등의 어촌마을과는 다른 풍습과 생활상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마을 내에는 50여 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영양남씨 괴시파종택(경북민속문화재제75호)’과 ‘대남택(경북민속문화재제168호)’을 비롯한 도지정문화재 15개소와 함께 크고 작은 가옥들이 공존하고 있다. 비지정 가옥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역의 민가 건축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지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내·외부 형태 등이 개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을 중앙부에 중마골로 불리는 골짜기를 기준으로 남쪽의 윗마을과 북쪽의 아랫마을로 구분하고 있으며, 윗마을은 ‘괴시파종택’과 ‘물소와고택(경북민속문화재169호)’, 아랫마을은 ‘대남택’과 ‘괴정(경북민속문화재397)’을 중심으로 영역을 이루고 있다.
- 중마골은 오래전에 이미 수안김씨들이 세거하였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영양남씨와 함께 일부 타 성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골짜기인 스무나무골에는 한국전쟁 이후 외부에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 비록 물리적으로 마을의 영역을 벗어난 곳이기도 하나, 마을 뒷산에 정자 건물인 ‘입천정(卍川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으로 부터 거리를 두고 ‘스무나 무골 재사(齋舍)’와 함께 교육 공간인 ‘침수정(枕漱亭)’이 자리 하고 있는 등 전통적인 반촌마을로서 갖춰야 할 유교적 건축요소들이 잘 유지되어 오고 있다.
- 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은 과거 새마을운동 기간 중 마을길 정비와 함께 지붕, 담장 개량사업 등을 통해 다소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이전까지 마을 내 전체 가옥 중 약 1/3정도가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 안 골목길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마을 앞 신작로 역시 이 과정에서 확·포장되었다고 한다.
- 이밖에, 중마골 위쪽에 위치한 목은 이색 유허지에는 2004년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목은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 괴시마을은 영양남씨의 집성촌이면서 고려말 대학자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 이색의 외가인 함창김씨(咸昌金氏)가 터를 잡은 이후, 한산이씨(韓山李氏), 수안김씨(遂安金氏), 영해신씨(寧海申氏), 신안주씨(新安朱氏) 등의 타 성씨들이 차례대로 정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괴시마을에 영양남씨가 세거하게 된 것은 남수(南須, 1395~1477)라는 인물이 인근의 장수면 인량리(인량마을)로 낙향하면서 부터로, 이때를 기점으로 후손들이 인근의 원구리(원구마을) 및 괴시리 등으로 세거지를 확장하게 되었으며, 괴시리(괴시마을)에는 후손 남정방(南靖邦, 1557~1592)이 수안김씨와의 혼인을 통해 최초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 퇴계 이황선생의 제자인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 1520~1588)를 통해 마을에 퇴계의 학통이 전해짐과 동시에 안동지역과의 교류가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이라는 유교적 질서가 가옥 내 사랑채의 기능과 역할, 평면구성 등에 그대로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후 남두원(南斗遠, 1610~1674)을 소위, 입향조(入向祖)로 하여 영양남씨(英陽南氏)가 본격적으로 세거(世居)하게 되면서 마을 내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안동 일대의 유림과 함께 영해지역의 대표적인 가문(안동권씨, 재령이씨, 대홍백씨, 문안박씨)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 학문적 교류를 꾸준히 지속함과 동시에 지역의 반촌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

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남봉익(南鵬翼, 1641~1687)이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6대(代) 동안 12명의 유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반촌으로 입지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 인근의 인량마을, 원구마을과 함께 영덕지역의 대표적인 반촌 마을로 평가되어 오고 있다.

- 또한, 마을에는 학문적 교류 및 교육의 장소로서 서당 및 정자, 재사 등의 시설 다수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중 1863년 건립된 괴호서숙(槐濠書塾)은 오래전에 소실되어 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입천정(廿川亭)을 비롯하여 경목재(景牧齋), 물소와서당(勿小窩書堂), 스무나무골 재사 등은 현존하고 있다.
- 마을 명칭에 대해서는 본래 마을 근처에 늪이 많고 북쪽에 연못(壕池)이 있어 ‘호지(壕池)마을’로 불렸다고 하나, 이후 목은 이색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방문하였던 마을의 형국(形局)과 매우 흡사하였다고 하여 그 마을의 이름을 차용하여 ‘괴시마을’로 명명한 것이라 전하고 있다.
- 마을 내 개별가옥을 건립 시기로 나열해 보면, 영양남씨 괴시파종택-대남댁-해촌고택-영해구계댁-영해경주댁-물소와고택-영감댁-상귀댁-영은고택-천전댁-주곡댁-사곡댁-백회재고택-구상댁 등으로 이어지며, 각 가옥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건축적 내용과 특징은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마을 내 (도)지정문화재 가옥의 경우 대부분 중정을 중심으로 안채(정침)와 사랑채, 문간채 등이 소위, ㄱ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지방 상류주택의 공간구성에서 보이는 지역적 보편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비지정 가옥의 경우에도 내부 봉당을 중심으로 각 실을 田자형으로 배치하는 소위, 겹집계열과 ㄱ자 또는 一자형의 초가삼간(草家三間)과 같은 홑집계열 등 다양한 주거형태의 흔적을 살펴 볼 수 있다.
- 또한, 마을 동남쪽으로 산맥이 가로지르고, 서쪽으로 넓은 평야에 면하여 입지하고 있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이들 ㄱ자형 가옥에서 안채(정침)가 자연스럽게 서향을 하게 됨에 따라, 사랑채 역시 이에 순응하여 서향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괴시파종택을 제외한 대남댁 및 영은고택(경북문화재자료 제459호) 등 대다수 가옥에서 사랑채를 남향으로 배치하였는데 그 수법이 매우 특징적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천전댁(경북문화재자료 제378호) 및 주곡댁(경북문화재자료 제393호)에서와 같이 안채와 사랑채 모두를 남향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확인 할 수 있다. 즉, 좌향을 고려한 사랑채의 배치양상에 따라 ㄱ자를 이루는 가옥의 형태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영덕지역 □자형 가옥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통래칸의 설치라 할 수 있다. 즉, 인량마을의 ‘영덕 충효당(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과 원구마을의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71호)’에서도 통래칸의 존재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괴시마을 내 대부분의 □자형 가옥에서도 통래칸의 존재와 그 흔적을 살필 수 있다. 다만, 통래칸의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안채(정침)영역과 사랑채 및 사당 공간과의 연계성 속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자형 가옥의 세부적인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안채(정침)는 一자형의 평면에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양측에 도장방과 상방을 놓고 상방 앞으로 통래칸을 설치하여 사랑채나 사당 영역과 연결시켰다. 안채(정침) 좌·우측으로는 안방-부엌-도장 등으로 이어지는 익랑채와 사랑방-사랑마루 등으로 구성된 사랑채가 달려 ㄷ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그 사이에 통상 마구-도장방으로 된 一자형의 문간채를 설치함으로써 □자형의 가옥을 구성하게 된다.
- □자형 가옥에서 안방을 익랑채에 배치한 것은 괴시과종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가옥이 서향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주 침실공간인 안방의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는, 안채가 남향으로 배치된 주곡택의 경우 안방이 익랑채가 아닌 대청마루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특징이다.
- 도장방은 곡식 등의 식량을 보관하는 장소로 통상 안채(정침)에 마련하여 안방을 통해 출입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괴시마을 □자형 가옥에서는 안채와 함께 익랑채에도 별도의 도장 공간으로 고방을 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방은 일반적으로 흙바닥이거나 마루로 마감하였는데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안채에는 가공 과정을 거친, 익랑채는 가공 이전의 것들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다만, 마을 내 물소와고택(경북민속문화재 제169호)이나 영감택(경북문화재자료 제424호)과 같이 가옥 내 도장방이 없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소위, 민속마을로 통칭되는 ‘집단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 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 이에, 괴시마을은 전통적 생활양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영양남씨 집성촌으로서의 내재적 질서와 함께 개별 가옥의 건축적 특징들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속마을로 통칭되는 ‘집단민속문화재 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마을의 지리적인 특징으로 살펴보면, 동해바다와 맞닿아 있는 농촌마을로서의 생활방식과 함께 동좌서향(東坐西向)의 입지 조건은 기존 민속마을과 구별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마을보존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마을의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져 보존·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면소재지가 바로 인접해 있는 관계로 향후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마을을 포함한 일대 주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마을의 규모를 결정짓는 ‘집단민속문화재 구역’ 설정은 향후, 효율적인 보존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집단민속문화재 구역’으로서 괴시마을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결정은 문화재위원회에서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봉화 오고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로 신규 지정(2020. 11. 9.)된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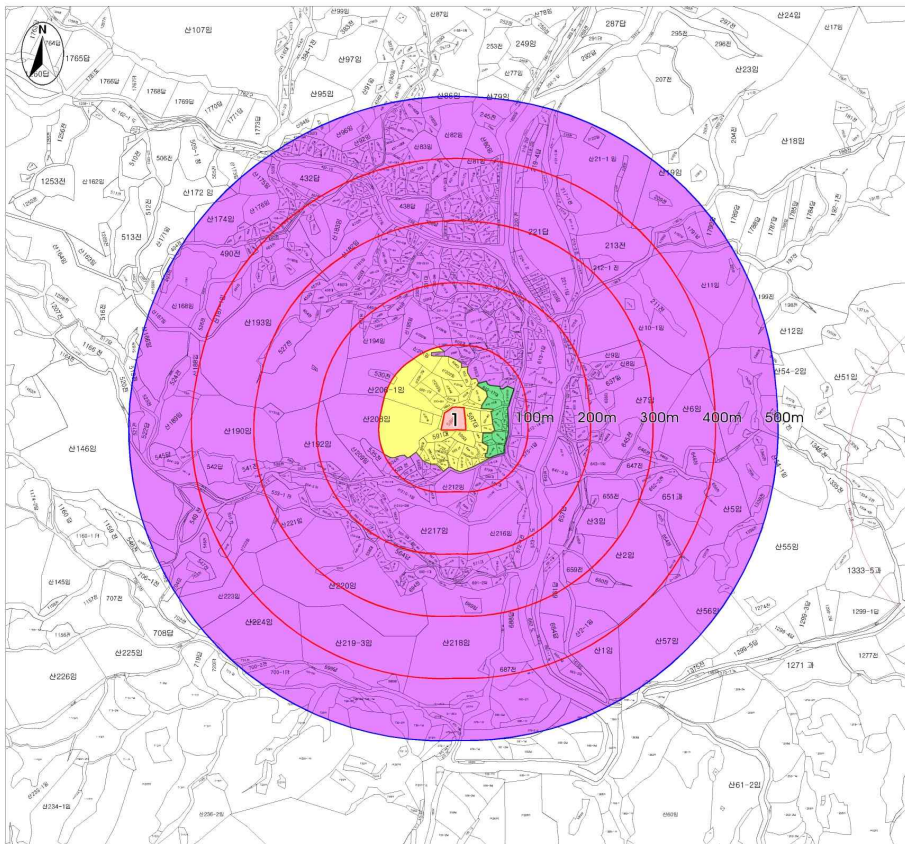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봉화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8
- (3) 검토내용
 - 국가민속문화재(고택) 경관관리 중점지표
 -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봉화군 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개축 및 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가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대상문화재
1. 봉화 오고당 고목(국기민속문화재 제298호)
- 위치 : 경북 봉화군 봉선면 봉양리 598

■ 문화재구역
문화재

■ 구역별 허용기준

구역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양쪽경사(10:3)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봉화군 도시(군)계획 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규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탑, 방부,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물 및 식물 관련시설(화식,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 외 울·장독대 수반(가)나 높이 3m 이상의 담은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량의 침투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상향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200m 밖에서 높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축척
0 50m 100m 250m A3 : 1/5,000

라. 주민의견 청취

- 의견수렴기간 : 2021. 4. 29.~5. 28.
- 의견청취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1. 4. 21.)

- 현지를 방문하여 역사문화환경 주변을 조사한 결과, 마을의 주진입도로에

면한 부분은 지자체안과 같이 2구역으로 유지하되, 문화재를 둘러싼 1구역은 부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쪽은 작은 도로를 경계로 하고, 동쪽은 능선을 경계로하는 것이 타당함.

- 서쪽(도로경계) : 590, 592-18, 19, 21, 22, 28, 31, 588-1, 2, 3, 4, 11 추가
- 동쪽(능선경계) : 산201 일부, 산202, 603-1, 2, 604 추가

바.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3.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에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5구역(이격거리 201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5구역 : 고창군 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고창 오거리 당산」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282-4, 878-1
- (3) 신청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 대지면적 : 1,361.00㎡
 - 건축면적/연면적 : 864.32㎡/14,901.04㎡
 - 층수/높이 : 지하4층, 지상 25층/87.2m

라. 현지조사 의견(전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21. 5. 31.)

- 제출된 높이(지상 25층, 87.2m)로 신축될 경우, 해당 문화재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근(동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에 17층(54.45m)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기 허가된 것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사항('20.04월 가결된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관련 심의자료)

- 신청건 :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 신청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4-3 외 3필지
 - * 금회 신청건과의 이격거리 130m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200m
- 신청내용(최고높이를 조정하여 4차레 문화재위원회 심의)

구분	'20.04월 신청내용(가결)	'20.02월 신청내용(부결)	'19.12월 신청내용(부결)	'19.10월 신청내용(부결)
건축면적	1,445.92m²	1,429.30m ²	1,429.30m ²	1,469.45m ²
연면적	17,686.09m²	22,765.58m ²	23,377.20m ²	30,582.71m ²
층수 /높이	지하3층 지상 17층 54.45m	지하4층 지상 27층 86.4m	지하4층 지상 29층 90.8m	지하5층 지상 39층 118.85m

4. 제주 성읍마을 내 건축물 용도변경(주택→휴게음식점)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내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성읍마을 내 건축물 용도변경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성읍마을 내 정의현성에서 북쪽으로 약 110m 떨어져 있으며, 지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 (4) 신청내용 : 건축물 용도변경(주택→휴게음식점)
 - 안거리 용도변경 : 당초) 주택 → 변경) 휴게음식점(1종근생시설)

변경전 용도	면적(m ²)	변경 후 용도	비고
주택(안거리)	49.58	휴게음식점 (1종근생시설)	전통차집
창고	39.66	변경없음	재료 등 보관창고로 활용
축사	23.14	변경없음	동물 형상 등 구비로 포토존 활용
주택(밖거리)	52.41	변경없음	전통양식 및 형상유지로 관람 및 포토존 활용

* 용도변경 외 면적·구조(돌담조) 변경없음

- 안거리 정비
 - 안거리의 굴목(아궁이) 공간 내 화장실(양변기) 설치 1개소
 - 기존 용자살문 외부에 세살청판문 설치 2개소
 - 툇마루 상부 전등 설치 2개소
- 오수관 설치: $\phi 150$ PVC, L=46m, 매설(굴착)깊이 1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1. 5. 18.)

-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내에 공가 상태로 방치된 가옥의 안거리(안채)를 근린생활시설(전통찻집)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채 우측편 굴목의 안쪽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오수관을 매설하고, 좌·우측방의 출입문을 기존 용자살에서 세살청판으로 변경하는 등 입면상에서 보이는 의장적 요소의 변형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퇴락되어 방치된 기존 가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가옥으로서의 진정성 훼손 여부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현 건축물의 구조·면적 및 경관구도를 유지하면서 용도만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5.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 4구역(이격거리 약 255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 4구역 : 경사지붕 12m 이하 허용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35㎡
 - 건축면적/연면적 : 147.95㎡/98.82㎡
 - 층수/높이 : 지상 1층, 5.55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붕/외벽: 스페니쉬기와(주황색)/테라코트 마감, 복층유리
 - 기타 : 건물 전면 폭 3m 나무데크 설치

※ 당초 4구역 내로 계획하였으나, 인접 주민의 일조·조망 관련 민원 제기로 건축물 배치를 변경하여 1구역을 18.03㎡(전체 건축면적의 12%) 점유한 상태로 건축하였음.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1. 5. 18.)

- 동 안건은 당초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 내에서 허용기준(지붕 및 높이)을 충족하여 단독주택(1층)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님.
- 하지만, 이후 동 주택 신축으로 인해 인접 주택의 일조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어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 배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상변경 허가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을 18.03㎡ 침범하여 준공된 상태임.
- 1구역 침범 면적이 비교적 적고, 해당문화재로부터 약 255m 이격되어 있어 이로 인한 직접적인 시각적 간섭이 미미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현상변경허가는 행위 개시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편람」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추진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에서 1구역 점유면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6.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2구역(이격거리 약 35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구역 : 경사지붕 7.5m 이하 허용(단, 초가, 한옥, 절충한옥에 한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함양 일두 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평촌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760.0㎡
 - 건축면적/연면적: 105.96㎡/105.96㎡
 - 층수/높이: 1층/6.95m
 - 구조/지붕: 목구조/스패니쉬기와(검정색)
 - 외벽: 세라믹사이딩 및 시멘트사이딩, 백색페인트
-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주황색 스페니쉬기와를 검정색으로 변경

라.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2021. 5. 26.)
 - 사업계획지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350m 이격된 마을 경계, 산밑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대지를 조성하고, 마을 방향으로 대나무숲이 가려져 있어

경관상 큰 저해요소는 없다고 사료됨.

- 단, 설계상 주변 환경을 고려해 지붕의 스페니쉬기와는 위원회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2021. 5. 26.)

- 국가민속문화재 함양 일두 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 내에 단독주택(2층)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높이 7.5m(경사지붕)이하의 초가 및 한옥(절충한옥)에 한해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신청된 주택의 경우 지붕형태와 높이는 기준에 충족되는 반면, 건축형태에는 부합되지 않음.
- 계획된 건축형태와 재료가 이질적이기는 하나, 해당문화재와의 사이에 대나무 받이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약 350m 이격되어 있어 직접적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사업예정지는 일두 고택이 있는 개평마을의 옆마을인 상개평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고, 고택 방향으로 대나무숲이 있어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7.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2구역(경사지붕 7.5m 허용/이격거리 약 22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3
- (3) 신청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397㎡

구분	기 신청	금회 신청	비고
건축면적/연면적	106.41㎡/109.36㎡	106.41㎡/109.36㎡	
구조/지붕	철근콘크리트/징크판넬마감	철근콘크리트/징크판넬마감	
층수/높이	지상2층/9.1m	지상2층/7.95m	높이 감소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21. 5. 24.)

-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 내에 단독주택(2층)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높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계획됨.
- 마을 내에 마을회관 등 2층 규모의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해당 문화재와의 사이에 2층 규모의 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 시각적 간섭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기 제출한 설계(안)에서 높이를 낮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8.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약 15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 443
- (3) 신청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대지면적 : 2,412㎡

구분	합계	1동	2동
건축면적/연면적	396㎡/396㎡	198㎡/198㎡	198㎡/198㎡
구조/지붕	-	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	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
층수/높이	-	지상1층/7.3m	지상1층/7.3m

- 부지구성 : 식생축조블럭 설치
 - 1구간 : H=2.9m, L=37.4m. 2구간 : H=0~2.9m, L=65.3m.
 - 3구간 : H=0~1.3m, L=8.6m, 4구간 : H=0~1.3m, L=9.41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21. 5. 24.)

-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축예정지 지목이

임야이며 풍수지리 형국상 해당문화재의 좌청룡 자락에 해당되는 곳임.

- 신축예정지를 포함 인근 지형이 과거 절토와 평탄화 등으로 인해 이미 지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울릉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7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 소재지 : 경북 울릉군 나리 1길 71-316
- (3) 신청위치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
- (4) 신청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
 - 대지면적 : 2,046㎡
 - 건축면적/연면적 : 72.5㎡
 - 구조 : 철파이프조
 - 최고높이 : 3.2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문화재지정구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와 사업부지 사이에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보고 사항

10.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충북 보은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보은 우당 고택」 주변 가설건축물 축조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계		12건	허가 10건, 조건부허가 2건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경북 영주시 장수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주변 방음벽 설치 ○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308일원, 304-5 일원 ○ 허용기준 : 1구역, 2구역 ○ 이격거리 : 약 141m, 약 182m ○ 신청내용 : 방음벽 설치 - 흡음식 방음벽(H=3.0m) L=40.0m, 2개소	○ 허가 - 도로 선형 개량으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피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민원인 요구에 따라 설치되는 방음벽으로써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안동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퇴계로 (안동시장)	□ 안동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조성 허가사항 변경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5-16 ○ 허용기준 : 지정구역 ○ 신청내용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2019. 10. 4 ~ 2021. 10. 3 - 변경 : 2019. 10. 4 ~ 2023. 10. 3 ※ 사업내용 · 주차면적 : 1,610㎡ · 주차대수 : 승용차 47대	○ 허가 - 2019. 10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신규 주차장 사업부지 매입 지연으로 임시주차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p>청도 윤림 고택</p>	<p>경북 청도군 금천면 (○○○)</p>	<p>□ 청도 윤림고택 주변 축사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 ○ 허용기준 : 3구역 ○ 이격거리 : 약 350m ○ 신청내용 : 축사 신축 2동 <table border="1" data-bbox="507 450 1050 667"> <thead> <tr> <th>구분</th> <th>주1</th> <th>부1</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 연면적(m²)</td> <td>288/288</td> <td>236/236</td> </tr> <tr> <td>높이</td> <td>7.5m</td> <td>7.5</td> </tr> <tr> <td>구조</td> <td>강파이프구조</td> <td>강파이프구조</td> </tr> <tr> <td>용도</td> <td>축사</td> <td>축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21.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민속문화재 청도 윤림고택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3구역 내에 기존 노후화된 축사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은 허용기준(지붕 및 높이)에 충족되나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함. - 기존 축사의 규모 내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해당 문화재에서 약 350m 이격되어 있어 시각적 간섭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구분	주1	부1	건축면적/ 연면적(m ²)	288/288	236/236	높이	7.5m	7.5	구조	강파이프구조	강파이프구조	용도	축사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축사를 철거 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공동사항(축사-개별심의)에 해당됨 - 문화재와 사업부지사이 산이 있어 시각적으로 가시되지 않고, 기존 축사 면적보다 축소되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구분	주1	부1																
건축면적/ 연면적(m ²)	288/288	236/236																
높이	7.5m	7.5																
구조	강파이프구조	강파이프구조																
용도	축사	축사																
<p>단양 조덕수 고택</p>	<p>충북 단양군 가곡면 (○○○)</p>	<p>□ 단양 조덕수 고택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 ○ 허용기준 : 3구역 ○ 이격거리 : 약 230m ○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토 : -0.769m~+0.95m - 자연석 석축 설치(가동) : H=0.5m~3m 171m² - 자연석 석축 설치(나동) : H=0.5m~3.4m 369m² ○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21.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민속문화재 단양 조덕수 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구역 내에 단독주택(1층)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은 허용기준(지붕 및 높이)에 충족되나, 대지조성에 따른 절·성토되는 양이 기준(3m)을 초과함. - 해당문화재가 산등성이를 넘어 위치하고 있어 시각적 간섭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신청부지는 산 반대편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문화재 주변 마을과는 별도의 권역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영주 무섬마을	경북 영주시 문수면 (영주시장)	<p>□ 영주 무섬마을 내 자전거 거치대 교체 허가사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44 * 당초 허가위치 : 문수면 수도리 216-1 ○ 허용기준: 지정구역 내 ○ 신청내용: 자전거거치대 교체설치(변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대 20대 및 키오스크 설치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허가부지에서 100m 이격된 위치로 변경하여 거치대를 설치하는 사항임. - 기허가부지의 지장물로 인해 관로공사가 어려워 부지를 변경 신청하였으며, 향후 기반시설 정비 완료 시 위치를 변경할 계획임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제천 박용원 고택	충북 제천시 금서면 (○○○)	<p>□ 제천 박용원 고택 주변 퇴비사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서면 적덕리 ○○○ ○ 허용기준 : 3구역 ○ 이격거리 : 약 460m ○ 신청내용 : 퇴비사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166.32㎡/166.32㎡ - 높이 : 6.9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항(축사-개별 심의)에 따라 허가 신청하였음. - 문화재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신청 부지가 가시되지 않고, 신청부지 주위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퇴비사 신축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경북 영천시 임고면 (○○○)	<p>□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주변 가설건축물 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 ○ 허용기준 : 3구역 ○ 이격거리 : 약 460m ○ 신청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18㎡/18㎡ - 높이 : 2.4m - 구조 : 경량철골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는 산수정에 인접한 위치로 진입로 등에서 조망되나, 소규모 농업용 가설 건축물인 점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 시 경관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역새 투막집	경북 울릉군 북면 (국방시설본부장)	<p>□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역새 투막집 주변 창고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43번지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400m ○ 신청내용 : 화공약품 창고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23.94㎡/23.94㎡ - 높이 : 3.2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경량철골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내 기존 가스 저장창고를 철거 후 화공약품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임. - 기존 창고와 유사한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는 건으로 문화재에서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 문화재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제천 정원태 고택	충북 제천시 금성면 (단양국유림 관리소장)	<p>□ 제천 정원태 고택 주변 사방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 27-1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480m ○ 신청내용 : 사방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상장 16m, 하장 12m, H=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사업부지사이 야산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시설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청주 고은리 고택	충북 청주시 상당구 (○○○)	<p>□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46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table border="1" data-bbox="517 819 1107 1039">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기존</th> <th colspan="2">변경</th> </tr> <tr> <th>1동</th> <th>2동</th> <th>1동</th> <th>2동</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연면적</td> <td>56.1㎡/56.1㎡</td> <td>42㎡/42㎡</td> <td>46.36㎡/46.36㎡</td> <td>42㎡/42㎡</td> </tr> <tr> <td>층수/높이</td> <td>1층/4.8m</td> <td>1층/4.8m</td> <td>1층/5.5m</td> <td>1층/4.8m</td> </tr> <tr> <td>용도</td> <td>단독주택</td> <td>창고</td> <td>단독주택</td> <td>창고</td> </tr> <tr> <td>구조</td> <td>일반목구조</td> <td>경량철골조</td> <td>일반목구조</td> <td>경량철골조</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변경		1동	2동	1동	2동	건축면적/연면적	56.1㎡/56.1㎡	42㎡/42㎡	46.36㎡/46.36㎡	42㎡/42㎡	층수/높이	1층/4.8m	1층/4.8m	1층/5.5m	1층/4.8m	용도	단독주택	창고	단독주택	창고	구조	일반목구조	경량철골조	일반목구조	경량철골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허가사항보다 면적은 줄었으나 높이가 0.7m 증가하여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에서 460m 이격되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구분	기존			변경																												
	1동	2동	1동	2동																												
건축면적/연면적	56.1㎡/56.1㎡	42㎡/42㎡	46.36㎡/46.36㎡	42㎡/42㎡																												
층수/높이	1층/4.8m	1층/4.8m	1층/5.5m	1층/4.8m																												
용도	단독주택	창고	단독주택	창고																												
구조	일반목구조	경량철골조	일반목구조	경량철골조																												
제주 잣동네 말방아	제주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장)	<p>□ 제주 잣동네 말방아 주변 시도38호선(하가리) 확장 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81-3 ~946-1 일원 ○ 허용기준 : 3구역 ○ 이격거리 : 약 162m ○ 신청내용 : 시도38호선 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10m , L=0.26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기설치 도로를 교통량 증가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태백산 천제단	강원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국립 공원사무소장)	<p>□ 태백산 천제단 일원 훼손탐방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혈동 산87-2 ○ 허용기준 : 1, 2구역 ○ 이격거리 : 약 120m ○ 신청내용 : 천제단 일원 훼손탐방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종비각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목계단 일부 제거 후 혼합갈기(돌7:목재3) · 폭 2.0m 초과부분 훼손지 복구 · 노폭 2m, 연장 90m, 면적 180㎡ - 유일사 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갈기 구간 신설(돌7, 목재3, 경사지·침식구간 등 탐방로 상 정비 필요구간) · 노폭 1.2m, 연장 243m, 면적 2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된 탐방로를 돌과 나무를 활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탐방로 인근 자연석과 유사한 야면석을 유입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함. 																													